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목이자가 오르면 오른금리로 대출해주는 약정금리로!
교육자금, 주택자금, 경조사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형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월 3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새해 벽두부터 국민의 관심이 총선에 쏠려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행태는 집권을 위한 모의와 이합집산으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는 느낌이 든다. 정치는 간데없고 선거만 판치는 현실에서 부처님이 설한 정치윤리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바른 정치란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고, 이기지 않고 이기게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슬프게하지 않고, 바른 법을 가지고 정의로 다스리지 않으면 않된다. 〈상응부 경전〉

평화로운 국토에는 재난이 사라지고 백성들은 기쁨에 넘쳐, 품안의 어린애를 어르며 문단속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요. 〈장부경전〉

대자(大慈)란 모든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고 대비(大悲)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일이다. 〈대지도론〉

시골과 도시를 파괴하고 포위하여 독재자로서 널리 알려진 사람 그를 천한사람으로 아시오. 〈숫타니파타〉

밧지국 사람들이 자주 모임을 가지고 상호간에 의사를 자유롭게 나눈다면 온나라 안이 서로 화목하여 갚수록 흥왕할 것이다. 〈장아함유행경〉

왕이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왕이 바르지 않을 때 그 관료들도 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타카〉

백성들을 개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하므로, 정치를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않으면 안된다. 〈금광명경 사천왕호국품〉

다만 바른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려라.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라. 〈유행경〉

정사를 아는 자는 한 악인을 버림으로써 한 집을 이루고, 한 집을 버림으로써 한 고을을 이루며, 정사를 알지 못하는 자는 민물(民物)이 그 함바를 잃어서 천하가 원망하고 송사한다. 〈이함경〉

정치윤리

왕 중의 왕 전륜왕은 법에 의지하여 덕을 펴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므로 모든 악으로부터 항복을 받습니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정치지도자는 자심(慈心)을 일으키고 혜지(慧智)로 관찰해 사실과 때와 도리에 의지하며 부드러운 말과 자비로운 마음에 의지해야 합니다. 〈니건자경〉

국가의 위기나 멸망의 원인은 함부로 시류에 영합하려는 데에 있다. 시류의 명관이 좋다고해서 여기에 귀기울이게 되면 결코 참된 현자(유능한 정치가)를 얻을 수 없다. 참된 현자를 얻으려면 그 사람됨을 바로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도원 · 정법안장〉

관련기사 3면

사찰도 '물비상' 19면
대장경 전산화 각국 현황 6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대통령 공개사과 촉구

"YS 국방부 교회 예배 종교 차별·국민 화합 저해"

교계 20여단체 규탄 성명…조계종 진상조사반 구성

김영삼 대통령의 국군중앙교회 예배참석에 대해 교계가 대통령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대통령은 일요일인 지난 21일 부인 손명순여사, 권영해 안기부장, 이양호 국방장관 등과 함께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3대 종교가 상징적으로 모여 군종교활동을 관장하고 있는 국방부 종교센타를 방문, 교회에서만 예배를 본 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날 김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 행사전날인 20일(토요일) 저녁 일직 계통으로 기독교 장병들에게 '대통령 참석 예배' 행사에 참여를 독려하는 바람에 일직과 당직 근무가 조정, 기독교인을 제외한 다른 종교인들이 일요정기법회 및 미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또한 이날 대통령 경호관계로 법회와 미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많은 신자들이 출입을 통제당해 신앙의 자유마저 침해받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것이다.

태고종 전국신도회, 한불청, 불교인권위원회, 대구광역시신도회, 부천시불교연합회, 경불련 등 교계의 각 시민단체가 연일 김영삼대통령의 관항된 종교정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실천승가회, 중앙승가대학 학생회, 동국대 석림회, 전승련, 대불청, 대불련등 불교계 6개 단체가 연대, 조계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 민원접수창구에 성명서를 접수시켰다. 6개단체 대표단은 김대통령이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신한국당 불신임운동을 전개키로 해 4.11총선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에게도 신앙의 자유는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3대 종교의 성전이 공존하는 국방부에서 대통령이 특정종교에서만 공개적으로 예배를 보는 것은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성명을 통해 "17사단 훼불사건, 대통령 청와대 예배건, 공무원안식년 휴가제도도입 시도건, 부활절 검정고시 연기사건 등 계속되는 권항작 종교정책은 대통령의 권력남용의 소산이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독교장병을 격려하는 모습을 지켜본 김모장병은 "기독교신자가 아닌 일반 사병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위축돼 있다"고 전하고, "군 내의 화합을 도출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갈등의 빌미를 제공한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군중앙성당의 한 간부는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이 편향된 사고를 지니고 있으니 앞으로 이나라가 어떻게될지 여간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종교계의 반응에 대해 당초 청와대 윤여준 대변인은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 교파를 가리지 않고 여러 교회를 찾아 예배를 할 것"이라는게 김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즉시 청와대 내부에서는 '경솔한 행사기획'이었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민정비서실은 "통치권자는 초종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론동향 보고서를 올렸다. 또한 4.11 총선을 의식, 문체부차관과 불교정치인들을 교계에 보내 불교계 감정을 무마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25일 현재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23일 특별진상조사반을 구성, 김대통령의 국군중앙교회 예배참석에 대한 경위조사에 들어간데 이어 김대통령의 공개사과가 없을 경우 전국적으로 집권당 지지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필선 기자〉



◇ 실천승가회 등 6개 단체 대표단이 지난 24일 청와대 항의방문을 위해 진출하다 안국 경찰서 앞에서 전경 1개 소대에 의해 저지 당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유니세프 內 불교인 클럽 결성

미얀마·泰등 불교국 어린이 구호 활동

추진위원장 제원스님…초파일경 공식 출범

한국불교가 전 세계 불교국들의 어린이 구호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모여 어린이들의 생존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 연합아동기구(UNICF) 한국위원회에 불교인 클럽을 결성하기로 한 것.

제원스님(길음복지관장) 오원스님(청보사 주지) 현진스님(여의도 포교원장) 계환스님(동국대 교수)등 스님과 이복전교장(동작국교) 이선미씨(BBS 아나운서부장) 등 10여명은 구랍 14일 하림각에서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창립준비작업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원스님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등 불교국가들의 어린이 구호, 영양, 예방접종 등의 구호활동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5월 부처님 오신날에 맞춰 공식출범할 예정인 불교인 클럽은 창립기념으로 불교관련 카드를 제작 판매, 수익금 전액을 불교국가들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불교인 클럽은 모금활동을 비롯 '사랑의 걷기대회' '사진전'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추진위원들은 오는 28일부터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불교국인 미얀마를 방문, 불우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의 실태와 현황을 조사한뒤 본격적인 어린이 구호활동을 시작한다.

승가대 김포학사 재검토

소음측정등 환경영향평가따라 이전추진

〈속보〉 중앙승가대학(이사장 월주)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소음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김포학사부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중앙승가대학 대책위로부터 지난 18, 19일 양일간 측정한 김포학사 소음측정 결과를 보고받고 전문 소음측정 용역업체에 의뢰, 김포학사에 대한 소음을 실측키로 했다. 〈관련기사 62호 19면〉

중앙승가대학은 이에따라 최소한 6개월여에 걸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김포학사 이전을 추진키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96년도 법인회 예산을 80억5천여만원, 학교 13억7천6백여만원으로 심의편성했다.

사 설

불평등 종교정책 바로 잡자

지난 1월21일 김영삼대통령의 군 인교회 예배참석에 대하여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미 실천불교승가회를 비롯한 20여개 승가·재가 불교단체가 연대하여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지금이 어느때인가. 불교계 안팎에서는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각종 편파방송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 때이다. 이러한 일들로 우리 불자들은 큰 상처를 받고 있는데, 이를 치료해 주지는 못할 망정 더욱 아프게 자극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현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편파적 종교정책으로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아 왔다. 청와대 예배 파문을 비롯하여 부활절 검정고시 일자 연기사건, 군법당 불상훼손사건 등 크고작은 불편·부당한 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났다.

이번 일의 진상도 상세히 밝혀져야 마땅한 일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사건전날 '대통령참석예배'를 기독교장병들에게 독려하기 위하여 타종교 장병들에게 일직과 당직을 강요하는 사태까지 있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대통령경호를 이유로 국방부 종교센터 내에 있는 군법당 출입을 통제하는 바람에 불자들의 일요정기법회 등의 신행생활이 어려웠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자 한다.

첫째, 현정권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 담고 있는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을 새삼 인식하고, 이에 위배되는 편파적 종교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특히 우리 한국사회는 여러종교·종파가 공존·공생하고 있다. 이러한 다종교사회에서는 국정책임자들의 엄정한 종교적 중립이 요구된다. 특히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민족문화창달에 노력'할 것을 모든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하였다. 공식적 행사에 있어서는 임연히 대통령이라는 공인(公人)의 자격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방부내에 있는 종교센터는 공공기관임을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기회에 각종 검인정교과서에 나타난 특정 종교비호사례 등 현실적으로 구석구석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종교불평등정책을 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관한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셋째 정부는 차제에 1600년이 넘게 우리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온 찬란한 불교문화의 중요성을 거듭 바르게 인식하고, 이러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와 맥을 정확히 알고, 널리알리는 교육·홍보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더이상 특정종교를 비호하거나 민족문화유산인 불교를 중시하는 편파적 종교정책을 버리고,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자는 깊은 참회를 통해 2천만 불자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속히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불자들도 불교의 명예와 자존심을 유지하는데 더욱 조직적이며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열 린 마 당

물을 아껴쓰자

3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겨울가뭄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비교적 물이 풍부하기로 이름난 산사들도 지하수 고갈위기에 놓여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가뭄극복을 위한 절수요령과 지하수 오염방지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공해등 환경오염 가뭄 주요인

정 덕 〈스님·지비의 전화 회장〉



물은 우주의 모체와 같고 젖줄과 같다. 즉 에너지 역할을 한다. 물이 없으면 이 세계는 정지하고 만다. 우주의 만물이 물에서 생기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우주의 이치가 이러 하듯이 우리의 인체도 마찬가지다.

물은 곧 인체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체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중에 하나이다.

날로 격변하는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오염된 환경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런 공해환경으로 말미암아 이상기온이 생겨 가뭄이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기후의 근본적인 것은 과학 발달과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가뭄을 경험삼아 환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하겠다.

오염되지 않는 사회는 물도 오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또 물을 아껴쓰고 맑은 물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절약을 생활화하여 어려울 때 일수록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사부대중이 앞장서자.

한방울 물도 재활용하는 마음

이 선 미 〈주부·서울시 휘경동〉



겨울가뭄이 극심하다. 경북 동해안과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3개월여 동안 비다운 비를 구경하지 못했다고 한다. 가뭄지역이 전북과 충청내륙에 이어 강원도 동해안까지 북상해 곳곳에서 비상책을 강구중이라하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가뭄이 유난히 심한 포항의 경우는 사흘에 한번씩 나오던 수돗물마저 새해들어서는 끊긴 곳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먹을 물을 위해서는 만사를 제치고 매일같이 소방차 앞에 줄을 서고, 목욕은 엄두도 못낸다는 하소연이다.

물론 이런 때에 국가차원의 시급한 가뭄대책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물한방울이라도 아껴써 가뭄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가뭄극복에는 주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과다한 세제사용량을 줄여 설거지물과 빨래물을 절약하고, 세수한 물에 빨래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설거지물에 걸레를 빤다든지, 그리고 변기 물탱크에 돌 등을 넣어 물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다. 목욕탕에서 무심코 수도를 틀어 놓던 목욕습관도 이제는 고쳐야 할 때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고도 쉬운 것들이다. 가정에서 먼저 물 절약을 솔선수범하자.

전문가 의견



오 홍 석
〈동국대 교수·지리학〉

'물은 무한하다' 생각버려야
무분별 개발이 수자원 고갈

남부지방에서 비가 왔다고 하지만 완전히 해갈된 것 같지 않다. 작년에도 가뭄이 심했음을 상기할 때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자연의 이치는 완만한 변화가 반복하는 사이 치유불능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디오피아의 수단도 사람살기에 알맞은 땅이 사막화된 예이다. 이것은 기후대가 변하고 있음을 뜻한다. 제행무상(諸行無常)으로 표현하듯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존재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다.

물은 비에서 시작된다. 빗물은 주로 유수(流水)가 되어 경사진 곳을 향해 혈관처럼 전신을 감싸 안고 흐른다. 모든 수계망은 장강대하(長江大河)를 이루어 바다에 모여들므로 분포비율에서 바닷물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바닷물은 염수이지만 육지에 비를 뿌리는 근원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순환작용은 땅 속으로도 진행된다.

그러므로 순환체계를 따라 유해물질이 혼합될 경우 전체의 수권(水圈)이 절단나게 된다. 지표수는 상류에서 하류로 흐른다. 그래서 강하류에 인구집단과 산업시설이 집중된 도시가 들어선다. 생활배수와 산업폐수를 방류하는 곳이 도시이고 희석(稀釋)하는 것이 유량이므로 수질오염은 하류로 갈수록 가뭄이 들수록 심하다. 반대로 청정도에 기초한 수질은 상류에 양호하므로 모든 도시는 앞을 다투어 취수장 이전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하천오염이 지하수로 연계되고 있음을 모르고 지하의 생수에만 의존하는 어리석음이다. 이제 산성비가 대지를 적시고 농약과 비료의 용해수가 땅 속으로 스미는 상황에 와 있다.

특히 중금속은 당초에 문제되지 않은 소량의 것도 장기간 농축되는 사이에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관정(管井)을 뚫고 있으니 이것은 오염수의 지하삼투를 돕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지하수의 용량이 한정되거나 무분별한 개발과 과열된 채수행위는 지면의 안팎으로 수자원의 고갈상태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물이 무한한 것으로 착각하거나 순환체계에 대한 몰지각을 바로잡고 절수(節水)를 실천할 때이다.

기상진단

대륙성 고기압영향 봄까지 가뭄

3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겨울가뭄은 한반도 상공에 넓게 퍼져있는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3~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래 겨울철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기후대이나 올 겨울을 비롯하여 최근 3년간 계속된 가뭄은 남태평양의 해수온도가 높아 북극의 찬기류가 한반도 이남까지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름 장마철에 연간 강우량의 90%가 내리는 강우특성상 해갈될 수 있는 강우량인 400mm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절수요령

겨울가뭄이 극심하여 절수운동이 필요한 때다. 환경부의 수도물 아껴쓰기 요령을 소개한다.

▲양치질이나 샤워, 면도할 때는 수도꼭지를 필히 잠그도록 한다. 또 물을 컵에 받아서 사용하면 5ℓ의 물이 절약된다. ▲자동차 세차시에도 물통을 사용하여 물을 절약하고 차의 지붕부터 씻어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을 사용한다. ▲설거지는 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물오염을 최소화하는 천연세제를 사용하는 것도 가뭄대책의 한 요령이다.

환경부는 가정에서 절수를 생활화하여 물사용량을 20%줄이면 부산시민이 사용하는 하루 수도물(1백62만톤)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대만평

박 구 원



종교적 견해 고해성사를…

목어

대통령이 종교를 가졌다고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많은 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사회에서 대통령의 종교생활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이미 김영삼정부 출범 초기에 있었던 청화대 예배파문이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 또 김대통령의 신앙생활이 물의를 빚고 있다.

김대통령은 1월21일 부인 손명순여사와 국방부 국군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보았다. 그 자리에는 교회장로인 권영해 안기부장과 이양호 국방장관이 배석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불교계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거센 항의를 하고, 일반인들도 상식 밖이라는 표정이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지켜야 할 종교활동에 대한

만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

절제와 균형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줬다."

"기독교 장병들의 '대통령참석예배' 참여를 위해 일직·당직을 대신하느라 일요 정기법회에 참석 못하였다니…"

"대통령이 기독교장병들만 위로하고 같은 종교센타안의 법당이나 성당의 신자들 출입을 통제했다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다… 장병들에게 위화감을 갖게하고 깊은 상처를 입혔다… 군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군내 종교적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인지 전도사인지…"

"통치권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전군을 기독교화 할려는…"

"대통령이 특정종교를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불교계 20여 단체의 성명서는 한결같이 "대통령은 종교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화합을 위한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은 자신의 위치와 직무를 생각할 때 이런 파문을 왜 예기치 못했을까.

경전에서는 통치자의 善政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임금은 백성을 차별없이 사랑해야 한다" "왕은 백성을 부모가 갓난애 생각하듯 하고 괴로움과 즐거움을 파악해야 한다" "좋은 왕이란 정의에 의해 다스림으로써 만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말씀

보은의 길

만약 부모가 신심이 없거든 신심을 일으키게 해야한다. 만약 계를 안지키거든 계에 머물게 해야 한다. 만약 성직이 인색하거든 보시를 행하게 해야 한다. 만약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일으키게 해야 한다. 자식이 이렇게 하면 비로소 보은이라 할 수 있다. 〈비나야육〉

협찬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박 충 일

1996년도 1학기

원 효 학 당 신입생 모집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개강일시 … 3월 12일 (火)
- 모집과정 … 동장(銅章) 법사과정 ○○명
-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 …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사진 2매 (3×4)
-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 서류전형 / 개별통보
- 문 의 처 … 본 학당 사무국 (TEL: 3411-6167~8)

96년 1학기 신규개설강좌

이기영 박사의 〈불교개론〉 〈장자〉
정병조 교수의 〈인도불교사〉
진성규 교수의 〈대학〉

원효학당은 불법(佛法)을 가장 정확하게
회통적으로 이해한 원효대사의 사상에 입각하여
인류의 미래를 개척할 유능한 한국의 지성인을 배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본 학당은 21세기
새로운 문명의 산실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장 : 이기영 박사 / 부학장 : 정병조 박사

교과과정 운영안내

- 본 학당의 교과 과정은 다음과 같이 총 12년의 이수기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 동장법사과정 … 총 48학점 이수
  - 은장법사과정 … 총 24학점 이수
  - 금장법사과정 … 총 24학점 이수
  - 유리장법사과정 … 총 48학점 이수 및 논문이나 경전시험
  - 마니장법사과정 … 총 48학점 이수 및 논문이나 경전시험
  - 수정장법사과정 … 총 48학점 이수 및 논문이나 경전시험
  - 금강장법사과정 … 총 48학점 이수 및 논문이나 경전시험
- 위의 각과정을 이수한 분에게는 각각 해당법사의 학위가 주어집니다.
- 수강자의 희망에 따라 소정의 과정을 밟지 않고 적성에 맞추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 이미 타기관에서 이수한 분은 경력이나 이수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가지 이유로 출석수강이 어려운 분들은 본 학당에서 운영하는 통신과정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학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원 효 학 당 서울시 강남구 개포 3동 186-1 / Tel. 3411-6167~8

"마음 맑을때 세상 절로 투명"

맑고향기롭게 모임·BBS 특별기획

법정스님(맑고향기롭게 모임 회주)과 이계진씨(방송인)가 지난 26일 불교방송에서 맑고 향기로운 삶에 대해 특별대담을 나눴다. 법정스님은 공종원씨(2월2일) 박광서교수(2월9일) 진명스님(2월16일)과 오전 11시20분~12시에 연속 대담을 갖는다. 본지는 이 대담을 요약 중계한다.
〈편집자 주〉

법정스님과의 만남

주제: 맑고 향기로운 삶

대담: 이계진 〈방송인〉


법정스님


이계진씨

▲**이계진**: 스님, 건강하시죠. 강원도는 몹시 춥지요.

▲**법정**: 평균 영하18도~20도를 오르내리죠. 더욱이 지대가 높고 개울가라서 굉장히 추워요. 그곳에서 4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은 절이 아니고 화전민이 살다 비워둔 오두막인데 우선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경치가 빼어나게 좋은 곳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관심도 갖지않고, 그대신 물맛이 참 좋습니다. 지금껏 마셔본 물맛중에 제일 좋은 듯 싶어요. 요즘은 얼어붙어서 얼음을 깨 물을 긷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문할수록 삶 개선
현대문명의 해독제 자연밖에 없어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개울물 소리도 산골 아니면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이계진**: 예전에는 우리 전국토가 지금 계시는 곳과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많은 곳이 오염되어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경치가 빼어나다는 곳보다도 오히려 사람이 안잤던 곳이 좋은 곳으로 돼 있습니다.

'수도자의 처신' 늘 화두

▲**법정**: 큰절 주변을 비롯 지금은 전국 어디나 거의 오염되어 있습니다. 환경만 오염된 것이 아니라 절 자체도 너무나 과소비를 하다보니까 생활자체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절이 절 같지도 않고 거슬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수도자로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화두처럼 늘 과제로 떠오릅니다.

▲**이계진**: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주창하시고 시작한 것이 햇수로 만 3년이 되잖습니까. 세상을 스님 사시는 강원도 산골처럼 원래의 모습으로 되찾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 운동이 다른 캠페인들에 비해 좀 조용히 진행되었지 않나 싶은데요.

▲**법정**: 원래 맑고 향기롭다는 것 자체가 조용한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슨 운동을 일으킬 때에 용두사미격으로 바짝 올랐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래 제자신의 체질도 그렇고 여기 모여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그렇고, 조용히 꾸준히 이어나가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요.

▲**이계진**: 지역적으로 지부를 만들고, 지역모임을 많이 만드는 것도 모임을 활성화해 나가는 한 방편일 듯 싶습니다.

▲**법정**: 지금까지 춘천, 부산, 대구, 대전, 제주 등에서 지부활동을 해왔는데 올해는 전주, 광주, 대구, 원주 쪽으로 모임이 퍼져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불교방송하고 운동을 병행해서 하기로 했고, 작년부터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계진**: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지향하는 3대 지표로 마음 맑게, 자연 맑게, 세상 맑게 세가지를 잡고 있습니다만 우선 마음부터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게 좋겠습니까.

▲**법정**: 자연이건 사람이건 세상이건 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이 인간의 마음으로서 맑고 투명하다면 그 그림자인 세상도 맑고 투명해집니다. 세상의 온갖 사건 사고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횡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 자체가 순화되지 못하는 그야말로 맑고 향기롭지 못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맑고 향기롭게 운동도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을 맑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존재에 대해 그때그때 나는 누구인가, 어떤 것이 나의 온전한 마음인가 하는 것을 거듭거듭 자문하는 기회를 가질 때 삶이 조금씩 개선되어 갑니다. 요즘 이야기되는, 삶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외부적인 것, 외향적인 것, 생산적인 것, 표피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다보니까 마음이 휑한 겁니다. 옛날보다는 생활이 풍족해지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자리는 허전하고 갈피를 잡지못하고 있지요. 사람 마음을 안정시키고 맑히는 것은 올해 중점 과제로서 많이 논의돼야 할 사항입니다.

▲**이계진**: 스님, 강원도 산골에 계시니까 항상 느끼시겠지만 자연과 함께 살아야 사람이 제대로 마음을 맑힐 수 있고, 자연과 함께 해야 배울 것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종교초월 '한마음 운동'

▲**법정**: 소위 현대문명의 해독제는 자연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기댈 데가 자연입니다. 또 자연은 인간의 존재와 격리된 별개의 세계가 아니고 크게 보면 우주자체가 커다란 생명체인데 자연은 그 생명체의 본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커다란 우주 생명체의 한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연을 함부로 망가뜨릴수 없게 됩니다. 자연을 함부로 대하게 된 것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무기물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동양의 전통사상은 자연을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로 여겼습니다. 등산이라는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입산, 산에 들어간다고 했지, 산에 오른다는 말은 감히 쓸 수 없었지요.

▲**이계진**: 등산이라면 정복의 의미가 더 많죠.

▲**법정**: 흔히들 산을 정복했느니 따위의 소리를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정복합니까. 정복한다는 것은 거기서 자신이 살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 몇분도 안돼서 엉금엉금 기어 내려오잖아요. 말도 안돼죠. 그러니까 자연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으로서 커다란 생명체로 여긴다면 오늘날과 같이 환경오염이라든가 과소비라든가 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계진**: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처음 출발할 때 범종교적인 운동으로 결치자는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회주가 스님이셔서 그런지 불교적인 운동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종교를 떠나 범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법정**: 원래 맑고 향기롭게 운동은 모든 종교를 초월해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가꾸어 가자는 뜻에서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희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도 불자를 비롯해 개신교, 카톨릭, 원불교 등 다양합니다. 이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지요. 제가 승단에 몸을 담고 있어 꼭 불자만이 참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맑고 향기롭게 운동은 전혀 종교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더욱 성숙된 시민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 회원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정리=이은자 기자

> 외향적인 것
> 생산적인 것
> 표피적인 것
> 관심갖다 보면
> 마음이 휑해집니다

시 론

인기위주 새 판짜기



송 재 운
〈동국대교수 · 국민윤리학〉

국회부의장을 지냈던 전직 모 야당 중진은 요즈음의 정치를 무슨 미인선발대회나 노래자랑을 보는 기분이라고 어느 기고에서 토로한 적이 있다.

지금의 우리 정치에서는 전문가나 엘리트계층의 진지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이른바 여론 존중이라는 이름하에 대중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에만 온통 신경을 집중, 어쭙잖은 아마추어 수준의 여론이 국정의 향방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를 꼬집은 말이다. 이 말은 정치가 대중의 박수소리나, 아니면 비난의 소리에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칫 중우정치로 함몰할 위기에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그간 국회나 정당의 활동이 말없는 다수의 국민보다는 말많은 대중들의 반응에 따라 대증요법을 찾기에만 부심해온 모습을 보면 참으로 공감이 간다.

YS는 '感의 정치인'으로 이름 나 있다. 여론과 민의의 소재를 파악하는 정치적 직감력이 뛰어나다는 말이다. 그래서 대중의 인기에 곧잘 영합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YS의 정치적 체질이 그가 대통령이 되고서도 여전히 현실로 반영되고 있다면, 국정의 중요사안들이 치밀한 계획이나 논리적 타당성의 검증을 거치지 못하고, 감에 의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남북한 관계의 잦은 정책선회, 하루아침에 뒤어나온 역사바로잡기 등 수많은 '깜짝 쇼'들이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감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노래자랑을 보는 기분

현행 헌법하에서 김대통령은 단임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 이 말은 국민대중의 인기를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대중의 속성은 폭력적이다. 그래서 공격적이고 감정적이다. 그러한 여론만을 좇아 인기를 누리려 한다면 훗날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결코 긍정적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노래자랑을 보는 기분'이란 정치가, 그것도 집권여당의 정치가 인기에만 매달리는 중우정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김영삼대통령은 이제부터 인기없는 대통령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 국민 화합과 국가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요새 정당들의 인기전술은 4.11 총선을 앞두고 한층 더 가관이다.

박찬종씨와 이회창씨가 엊그제 신한국당에 들어갔다. 신한국에선 무슨 개선장군을 맞는 것처럼 열렬히 모시고, 야 3당에서는 일제히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지역분할구도가 또다시 명백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측되는 이 시점에서 박씨와 이씨의 영입은 집권 여당의 수도권 전략차원으로 이해되어서 그런지, 야당들의 공격은 배신감, 허탈감으로 요약된다.

국정보다 총선에만…

그러나 정작 허탈한 것은 국민들이다. 정당이란 사람들의 모임체다. 그것도 이념과 성향을 같이 하고 경험과 지식, 전문성 등이 조화롭게 뭉쳐진 그런 모임체를 뜻한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하는 집단을 말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정당들은 어떤가.

여당인 신한국은 유신과 5·6공 핵심세력, 구 여권 정부인사, 제도야권, 재야 및 운동권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계급정당의 출발로서 '민중당'을 주도하기도 했던 이도 있다. 색깔을 따지면 4色 정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야당들도 사정은 비슷하지만, 특히 집권여당에 대해서 불안, 회의, 허탈한 심정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나라를 책임진 여당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 때문이다.

우리의 현대사에 있어서 제 1공화국과 제 3공화국, 그리고 유신시대는 분명 독재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집권당은 분명한 국가이념과 국가 경영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집권정당이 이념면에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획일적이라 할만큼 오합지졸이 아니었다.

오늘날 많은 국민들은 김영삼정부의 개혁드라이브에 수긍을 하면서도 다른 측면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요약하면 국가 발전에 대한 원대한 목표의 제시가 없다는 것이다. 개혁. 개혁 하지만 그것은 과거 때려잡는 것으로만 느껴질 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4.11총선은 얼마남지 않았다. 정당들, 특히 여당은 선거전략을 대중적 인기도나 지명도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세워주길 바란다.

感과 人治 위주의 인기영합으로 대도무문의 경지가 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생활 속의 불교 ⑤⑨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바보들의 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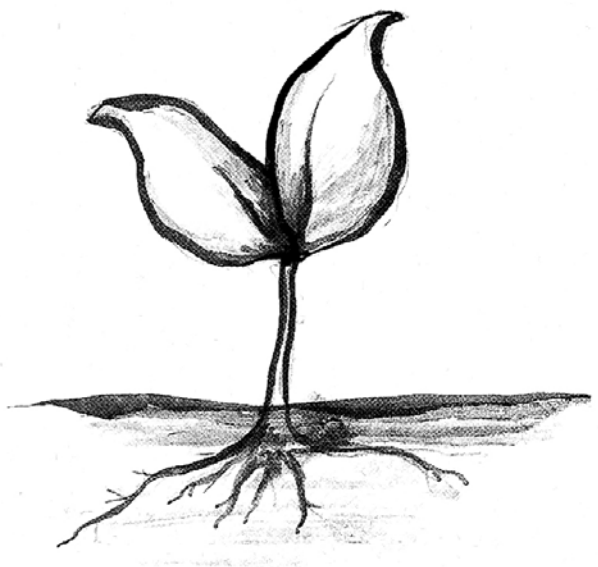
사람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세포 하나하나는 독립 생명체로 기능하면서 다른 세포들과 정보를 주고 받거나 물질을 나누어 갖는다고 한다. 이른바 세포의 신진대사 기능은 또 수천 가지의 화학반응에 해당되는데 그런 화학반응을 통해 각 세포는 생존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설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세포마다 수명이 일정치 않아서 우리 몸 속에서는 끊임없이 묵은 세포와 새 세포의 자리바꿈이 일어나고 있다 한다.

현대과학이 그 오묘한 작용의 전모를 아직은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만 약 60조 개의 세포가 한 순간도 쉬지 않고 그야말로 찰나찰나에 나툰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 찰나의 나툼이 없다면 우리 육신은 화석이나 다름 없을 것이고, 그런 나툼이 한 순간 멈춘다면 육신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 몸'이란 찰나도 가만히 있지 않는 세포들 60조 개의 결합이면서, 그 결합 또한 잠시도 머물지 않는 그러한 상태나 다름 아니게 된다. 마치 인구 50억의 지구에 비유할 그런 모습인 것이다. 고로 '내 몸'은 한 순간도 멈추지 않는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해야 맞는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의 상태를 꼬집어 '나', '내 몸'이라고 해야 옳겠는가.



몸 속에서 일어나는 수천 가지의 화학반응들, 60조 개의 세포들이 각각 독립체이면서 가지런히 질서를 유지하는 현상들, 세포와 세포가 그물처럼 연결되어 서로 간에 생존에 필요한 물질과 정보를 교환하는 현상들, 그런 현상의 주재자는 과연 누구일까.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등이 그런 현상을 조절하고 있는가. 분명 아니다. 나의 의지, 나의 생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면 무엇보다도 병고에 시달려야 할 까닭이 없다. 더구나 조절은커녕 몸 속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제 몸에 관해서라면 까막눈이요 귀머거리이다. 세상물정에 대해 네노라 뽐내는 사람도 제 몸에 관한 한은 청맹과니에 불과하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보인 셈이다.

그렇다면 주재자는 누구인가. 각각의 세포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 내가 나라고 하는 그 의식·생각은 무엇이며 주재자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 꼴이 되지 않는가.

육신에는 한 순간도 고정된 모습이 없고 나의 의식·의지로는 육신을 주재하기는커녕 그 오묘한 작용의 이치조차 모르고 있다면 과연 내가 '나'라고 고집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집안 살림의 내용을 모르는 그 '나'를 주인이라고 내세울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는 제법무아—모든 현상에 '나'라고 정의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셨다. 찰나도 고정됨이 없으니 어느 때의 나를 나라고 할 것인가. 다만 '나'라고 고집하는 생각—가짜의 나, 가화합의 나가 있을 뿐이라고 하셨다.

가짜를 참으로 알고, 가아(假我)·가화합의 나를 참나로 알아 그것을 중심삼아 살아서는 안 된다. 불자라면 모름지기 왜 가아라 했는지를 참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현상계의 이 '나'를 형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 오묘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견성이다.

세화당 한약 도매상
(각종 한약재 도산매)
대표 정갑봉
전화 : 광주 225-3355~7
팩스 : 광주 225-5678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법회 안내

한성 포교원 (02)207-8296

신중기도 매월3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거사법회 첫·셋째주 토 오후6시
신행화법회 5기 모집중

국군중앙법당 (02)796-0230

화요법회 매주 화 오전11시40분
수요법회 매주 수 오후6시30분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제천 한산사 (0443)46-3047

초하루·신중기도·기원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보름·안등기도·보살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정혜불교교양법회 매월 첫째주 수 오후7시
거사림현정화법회 매월 첫째·셋째주 금 오후7시
원음불교합창단법회 매월 둘째·넷째주 월 오전11시

대구 서구교육원(053)557-3599

초하루법회 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18일(음) 오전10시30분
정기법회 매주 금 오전10시30분

양양 낙산사 (0396)672-2448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24일(음) 오전10시

밀양 대각정사 (0527)355-3770

정기법회 매월 첫째 일 오전11시

대불련 총동문회 (02)723-9811

수요법회 매주 수 오후7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교차로

서울시민 위한 법회



월주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은 2월 2일 오후6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범어사 강원교육 강화



성오스님은 지난 18일 조계종 범어사 신임 주지로 취임했다. 출가 이후 줄곧 선승으로 정진해 온 스님은 이날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강원교육에 주력해 옛 범어사 고학풍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안암어린이집 관장 내정



혜도스님(보타사 주지)은 지난 18일 중앙승가대 이사회에서 성북구 소재 안암어린이집 관장에 내정됐다. 안암어린이집은 성북구청이 중앙승가대학에 위탁운영을 의뢰한 것으로 연면적 200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정계은퇴 교화사업 매진



박완일씨(전 조계종 신도회장)는 지난 22일 교계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계를 은퇴했으니 본격적으로 불교신행운동 주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각 단체나 사찰의 강연을 통한 교육사업과 다보법회의 정기적인 특강, 강연 녹음테잎보급등 불교 교화사업에 매진할 생각"임을 밝혔다.

中 신년음악회서 지휘



박범훈교수(중앙대)는 2월 6일 중국 베이징 음악청에서 열리는 신년 음악회에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객원 지휘를 한다. 이 음악회에는 김성녀씨등이 출연한다.

극민훈장 모란장 받아



김증규씨(삼성출판박물관장)는 지난 한해 광복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 공로로 지난 18일 이수성 국무총리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석용산스님 초청법회

이상대씨(대불청 부산지구장)은 오는 2월 4일 오후3시 KBS 부산홀에서 '청년불자를 위한 석용산스님 초청법회'를 개최한다.

대덕㈜ 성불회장 취임

유우석씨(원자력연구소 연구원)는 지난 1일자로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불자들의 신행단체인 성불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종과 염습 간병인 교육

김정자원장(부처님마을 자광원)은 오는 2월 1일 오전10시 20분 능인 사회복지관에서 간병인 교육 과정으로 임종과 염습을 강의한다.

여론수렴 자율적 종무행정 수행

신임 문체부 종무실장 김 용 문 씨



지난 24일 문체부 종무실장으로 임명된 김용문실장은 부임소감을 통해 "우리민족은 종교적 민족이라 할 정도로 종교를 숭상해왔고 국민의 과반수가 종교인이다"며 "종무행정수행에 있어 종교계 지도자의 조언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김실장은 또한 "종무행정의 과제는 종교간 화합도모와 종교가 국민의 정신생활을 건전하게 계도하는 일이다"고 강조하고 "종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종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예술진흥국장, 문화정책국장등을 역임한 김실장은 불교관에 대해 "불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성있는 종교다"며 "생활양식은 물론 민족문화유산에 끼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엽〉

정종택 환경부장관 월주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23일 총무원에서 정종택 환경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이자리에서 정장관은 '음식쓰레기 줄이기운동'에 불교계가 적극 동참해줄것을 요청하며 6개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을 주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월주스님은 발우공양정신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간 '동쪽나라' 제4회 아동문학상 시상



월간 동쪽나라(발행인 김형균)는 지난 24일 출판문화회관에서 '제4회 동쪽나라 아동문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동시부문에는 안미란씨의 〈주차금지〉외 3편이, 단편동화부문에는 정향숙씨의 〈할아버지의 보물섬〉이 각각 당선됐다. 시상식에는 불교출판협회장 원택스님, 동시작가 김종상씨, 동화작가 정채봉씨, 소설가 정찬주씨 등이 참석.

'96 인물

식물자원 수집가 김 인 기 씨



네팔·티벳등 돌며 법화경 속의 약초 채집

"연구결과 한의학 자료로 기증"

"불교는 우리나라 전통종교이고 불교에서 유래된 한의학을 중요시 하면서도 그동안 부처님 나라의 식물 약물자원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식물자원에 대한 보존과 연구는 비단 불자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식물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으로 90년부터 네팔의 많은 유용 식물유전자원의 수집과 도입에 나선 식물자원 수집가 김인기씨(63)의 말이다.

고려개발 주식회사 사원으로 네팔지사 룸비니에 근무중이던 지난 86년, 농촌진흥청에서 파견된 유전자원수집단의 자원수집에 협력한 것이 동기가 돼 식물자원수집과 연구를 시작했다. 김씨는 이후 뜻있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세상을 이익케 한다는 뜻의 '세익농산상사'를 설립하고 네팔을 중심으로 한 히말라야, 부탄, 티벳등을 돌며 식물수집을 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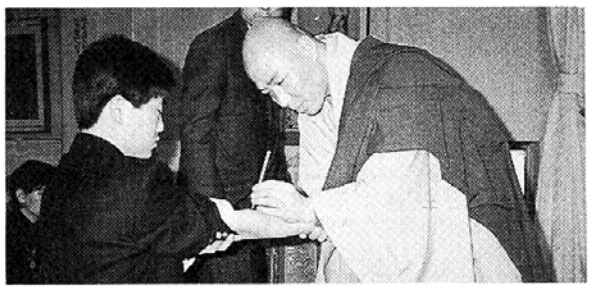
특히 김인기씨는 불자로서 불교와 관계되는 약초와 나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열심히 수집도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94년 룸비니주의 부트왈에 있는 약사사주지 비추춘다 사스트리스님을 만나 50년전 인도어로 발행된 약사경전을 스님께 빌려 현재 네팔 카투만두 대학에 영문번역을 의뢰중이다. 이 경전의 번역이 끝나는 대로 김씨는 불교관련 약초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생각이다.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암나과일(한국의 참다래 정도에 해당)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사경전의 영문번역이 완료되면 네팔 인도지역의 약용식물 7백 80종 가운데 불교관련 식물을 분류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연구를 전개할 계획입니다"라고 김씨는 말했다. 그러나 불교관계경전의 번역이 너무 어려워 우선 오는 4월까지 약사경전의 식물부분을 해석하고 이후 나머지 부분도 계속적인 작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기씨는 이같은 연구의 결과를 동국대 한방병원등에 한의학 자료로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은자 기자



"통일되면 부모님께 효도해야죠"

초격스님과 인연식 가진 귀순용사 한 용 수 씨

지난 20일 오전11시 서울 서초동 광명선원. 50여명의 신도가 법당을 메우고 있었고, 조금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의식이 거행됐다. 북한 귀순용사 한용수씨(20)와 광명선원 원장 초격스님과의 인연식. 한용수씨를 부처님품에 인도하여 올바른 신앙생활과 사회적응을 돕겠다고 부처님께 서원하는 의식이다.

참석자 모두가 합장으로 마음을 모은 가운데 초격스님이 고유문을 낭독, 한씨의 오른팔에 연비를 하고 명경지수와 같이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라는 당부와 함께 '법경(法鏡)'이라는 법명을 주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12일 아군 7사단 초소로 단신월남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법률서비스 담당
김용호 변호사

"각종 피해 예방·분쟁 자체해결에 노력"

"불교계도 법률문제로 인한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간단한 계약서작성을 소홀히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쉽게 접합니다. 안타까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마련된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사부대중이 쉽게 이용하도록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종단산하 사찰과 단체의 법률적 문제를 돕기위해 실시하는 법률서비스의 불교내부 분쟁을 전담하게 될 김용호변호사는 "법률문제가 한국불교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재학시절 불교학생회 회장을 역임한 김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에서 처리된 불교관련 소송가운데 많은 부분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불교계의 분쟁을 사회법으로 끌어내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변호사는 또한 "불교문제를 사회법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종헌·종법과 정당한 운용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젊은이들과 함께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작은 일이라도 앞장서는 불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9면〉

〈이준엽 기자〉

인 사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장 정기영 ▲문화재관리국문화재기획관 박명규

동국대 ▲신규 전임강사-혜원스님(불교학과) 윤소희(국악과) 외 36명
▲재임용 채인환(선학과)교수외 32명
▲승진 정교수-현각스님(선학과) 도업스님(불교학과) 황옥자(불교아동학과)
조교수-정무환(불교학과)교수외 46명
▲면직 김용정(철학과) 교수외 9명

게시판

▲신입생 모집=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 한국학사관리처에서는 오는 2월 26일까지 불교사회철학과 9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02)424-6637~8

▲학생모집=선문화(禪文化)대학은 오는 2월 30일가지 불교신자 및 불교에 뜻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9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042)531-9542

▲직장인 불교강좌=동산불교대학은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불교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접수는 31일까지. (02)732-1206~8

▲강사모집=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도울 자원봉사를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서예, 건강체조, 고전무용, 사물놀이, 에어로빅고, 봉사시간은 주 1회, 1시간 정도. (02)852-0525

▲뮤지컬·연극교실=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2월 6일 개강하는 유아~국교4학년 대상 뮤지컬·연극교실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료 2만원. (02)421-6077

1996학년도 신입생 모집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영연방 대학소속의 세계적인 명문 스리랑카 정규 불교대학교의 학위 과정을 국내에서도 이수하게 됩니다."

강의는 국내에서, 졸업은 스리랑카 본교에서
수능시험 응시계열 구분없이 지원 가능

수업연한	학 과	과 목 명	특 전
4년	불교사회철학 (Studies in Buddhist Social Philosophy	① English ② Pali ③ Philosophy(Ⅰ Ⅱ Ⅲ Ⅳ) ④ Buddhist Social Philosophy ⑤ Emergence of Buddhism ⑥ Buddhist Social Institutions ⑦ Early Buddhism ⑧ Buddhist Education ⑨ Buddhist Aesthetic concepts and Arts ⑩ Expansion of Buddhist Culture (Ⅰ Ⅱ) ⑪ History of Indian Buddhism ⑫ History of Korean Buddhism. etc.	①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커리큘럼과 학사일정에 따름 ② 졸업후 영연방 및 외국의 모든 대학원에 유학 가능함. ③ 지방에서도 통신에 의해서 학위과정 이수가 가능함. ④ 어학 연수 가능 ⑤ 승려는 장학금 지급 ⑥ Computer 교실 운영

●모집인원 : 80명(주간 : 40명 야간 : 40명) 통신생 약간명
●입학자격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타종교인도 가능)
●전형방법 및 일시
①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무시험 전형) ② 면접 : 1996년 3월 2일 13시
●원서접수 및 교부 (우편도 가능)
① 96년 1월 19일 (금) ~ 96년 2월 26일 (월) 17시까지
교부 및 접수 : Buddhist and Pali University of Sri Lanka 제1학사 관리처 2층
●문의전화 : (02) 424-6637~8 / FAX : 424-6639

Buddhist and Pali University of Sri Lanka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한국학사관리처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국어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교미술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취득
92. 8 본교학생 48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8명 취득 예정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전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재정지원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6년 2월23일까지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 :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부산 영광도서 : 816-9500
대구 제일서림 : 424-0801 대전 문경서적 : 252-8558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화불교대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등정보다 더 어려운 일은 下山"

"정복하겠다는 욕심마저 버려야 한다
그 욕심이 필경 실패와 죽음 낳기 때문"

산문밖의 수행

탐험가 **허영호** 씨



"왜 산을 오르고 왜 극지를 탐험 하는가?"

3대극점 7대륙 최고봉을 모두 밟은 허영호씨도 정작 '왜'라는 물음 앞에선 명쾌한 답을 못한다. 어쩌면 산사나이에게있어 이 질문은 영원히 못 풀어낼 화두일 것이다. 혹자는 '산이 그곳에 있어서 오른다'라고 말하지만 허씨는 '산이 나를 불러서 오른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같은 이유들이 자신들의 등반과 탐험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은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글쎄요. 내가 왜 산을 오르고 미지의 땅을 찾아 나서는가를 안다면 더이상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는 또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떠나는 것이 가장 그 다운 일이며 떠나기 위해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것이 그의 삶 전부인 것이다. 이번에 계획하는 것은 세계일주다. 지구 전체를 하나의 정복점으로 삼아버린 이 계획은 '더이상 오를곳이 없는 사람'의 것이 아니다. '아직 못 간 곳이 더 많은 탐험가 허영호'의 숙명이다. 지난해 12월 12일 남극 대륙의 최고봉 빈슨 매시프를 밟으며 세운 계획인데 그가 해발 5천 1백 40미터의 정복점에서 또다른 정복의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한 그의 등정과 탐험 여정도 쉼이 없음을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세계일주 계획인 셈이다.

"자동차로 지구를 일주하며 각 대륙의 오지와 극지 산악지대와 열대우림지대를 모두 섭렵할 생각 입니다."

산이 나타나면 산을 오르고 사막이 나타나면 사막을 건넌다는 지극히 '허영호식' 계획이다. 여기에 또 그만이 생각해낼 수 있을 기록도전도 계획되어 있다. 무보급 남극대륙횡단이 그것이다.아무런 지원없이 썰매를 끌고 3천㎞의 남극대륙을 건넌다는 발상.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죽음을 연상시킬만한 계획을 설명하며 오히려 신명이나는 허영호씨는 "불가에 일체유심조란 말이 있지않습니까. 생각에서 이미 등정과 탐험의 승패가 결정 나는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산을 오르고 극지를 탐험하며 그가 배운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소중함이다. 며칠을 빙벽에 매달려 잠자며 산을 오를 때에도 오직 마음만이 자신을 지켜주었고 가도가도 얼음산일뿐인 북극의 추위에서도 마음이 그를 앞으로 더 나아가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살아야 한다거나 꼭 정복하고 말아야 겠다는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욕심이고 그욕심은 필경 실패와 죽음을 부르는 것이니까요. 그저 내가 여기있고 나는 즐거운 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모든 악조건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싸움의 상대는 자연아닌 '나' …3극점 7대륙 정복

생각에서 이미 등정과 탐험 승패 결정
떠나기 위해 돌아오고 돌아오려고 떠나

허영호씨에게 가장 큰 스승은 히말라야다. 두 차례나 에베레스트(해발 8천8백 48m)를 등정한 그는 그곳에서 자연의 외경스러움을 배웠고 산사나이로서의 기품을 배웠다. 87년의 첫등정은 세계사상 3번째의 동계등정이었고 두번째인 93년의 등정은 최초의 남북단 루트 횡단 기록으로 더욱 돋보였었다.

"에베레스트를 두 번 올랐지만 처음의 정상은 약간 평평하더니 두번째는 뾰족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구의 한 극점인 에베레스트 정상의 변화무쌍, 그것은 인간 삶의 무상함과도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요. 부처님께서 고행 했다는 그 설산이 고행자 싯달다에게 얼마나 많은 진리를 전해 주었을것인가를 생각하며 히말라야는 산사나이의 영원한 도량임을 믿게 됐습니다."

히말라야가 그에게 도전의 도를 가르친 스승이었다면 마나슬루(8천156m)는 후퇴의 용기를 가르쳐 준 스승이었다. 83년 마나슬루를 무산소 단독 등정한 그는 정상을 바로 1백미터 앞두고 돌아섰었다. 욕심내어 강행하면 어떻게든 정상이야 오를 수 있었겠지만 내려올 일은 자신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해발 8천미터 이상을 산소공급기 없이 오른다는 것은 쉽게 생각도 못할 일이다. 더구나 사람들의 관심이 정복에 있을지라도 산악인에게 등정보다 더 어려운 일은 바로 하산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였기에 후퇴의 용기를 교훈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함께 떠날 대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먼저 심성을 본다. 인간 능력의 한계에서 보여 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은 예측불허 그 자체이다. 그래서 심성이 자신과 통하는 사람을 동행의 우선으로치고 결정된 동반자와 떠나기 앞서 무수한 대화를 나누고 가슴을 열어 하나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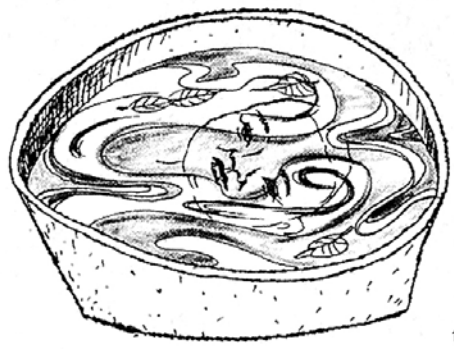
지난해말 남극대륙 최고봉인 빈슨 매시프를 오를 때에는 초속 20~30미터의 강풍과 영하 30도의 혹한과 싸워야 했다.정상을 오르기 위해서는 수직 30미터의 빙벽을 공략해야 했다.

"강풍과 혹한 또는 빙벽을 상대로 싸웠다면 실패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싸움의 상대를 자연적 여건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상대로 삼았습니다. 악조건이라는 상황도 나라는 상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결국 그는 자신을 이김으로 3극지와 7대륙의 최고봉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이다. 숱한 화제와 동경의 대상이고 젊은이들의 희망인 허영호씨는 언제 가장 죽음 가까이 갔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람좋게웃으며 반문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연태 기자



심화 · 이기선

날마다 마음에 청정수를…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⑲

정정(正定)

탐진치 물들면 사물 바로 못봐

눈에 티가 들어가면 사물을 바로 볼 수 없다. 티가 빠져나가지 아니하면 눈이 아물거리고 눈물이 가로막는다. 눈은 맑은 수정체로 있어야만 한다.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금가루라 할지라도 눈에는 티끌인 것이다. 대상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려면 눈이 맑아야 하는 것이 정칙이다.

남전 상승부 상가라경에 있는 말씀이다.

'붓다가 사위성의 기타(祇陀) 숲의 정사(精舍)에 계실 때, 어느 바라문이 찾아와 물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때는 정신이 맑아, 지금까지 배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 배우지 않은 것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혼미하여 배운 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바라문아,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이 있다고 하자.

만약 그 물이 붉거나 푸르면 거기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도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이 마음이 탐욕에 물들어 있을 때에는 어느 것도 있는 그대로 비쳐지지 않는다.

또 만약에 그 물이 끓고 있다 하여도 얼굴을 비춰볼 수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이 마음이 노여움에 휩싸여 있을 때에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또 물 위에 이끼나 풀이 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와 같이 마음이 어리석음으로 가려져 있으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바라문아, 그와 같이 마음이 탐욕에 흐려져 있지 않고, 노여움에 들끓지 않으며, 어리석음에 가려져 있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물을 본다고 할 때는 가라앉은 마음인 정일된 마음이 되어야 한다. 들떠 있거나 혼미한 마음으로 사물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분간하지 않고 사물을 보려고 한다. 그러므로 오류를 범하는 일을 하게 된다.

경전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신이 해맑아져 있을 때는 배울 것이다. 배우지 아니한 것일지라도 모두를 설명할 수 있지 않는가. 정신이 혼미하게 되었을 때는 아는 것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배우지 아니하였고 알지 못한 것은 더더욱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쉽고도 분명하다. 이것이 깨친 분의 사실이다. 물이 흐리면 어떤 사물도 바르게 영상되지 아니한다. 붉은 물이 든 붉은 물, 검은 색으로 물들여진 물은 어떤 사물들을 그 사물 그대로 투영하지 못한다. 비춰지는 것은 비춰질만큼 해맑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성이다. 여기다 온갖 물감을 쏟아부우면 맑은 물은 물들은 물로 변색되어 버린다. 우리는 변색된 마음을 갖고 살려고 노력한다. 또한 끓고 있는 물위에 얼굴을 비춰보려고 애써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음이 뒤끓고 있음을 상징한 것이다. 무엇에 끓고 있는가. 노여움, 성냄에 펄펄 끓고 있는 것이다. 노여움이나 성냄처럼 무서운 것이 있는가. 그래도 우리들은 용광로처럼 쇠물이 끓어 오르는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도 잘못된 마음이다.

물 위에 이끼나 풀이 둥둥 떠다닌다면 얼굴이 비추어지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날이면 날마다 스스로의 마음을 가라앉혀야 함을 간곡히 일러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면서 물에다 물감을 쏟아붇고, 끓는 물을 갖고 다니고, 이끼낀 호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물감은 탐욕에 비유하고, 끓는 물은 분노에, 이끼는 어리석음에 비유한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이다. 마음 그것이 맑아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맑아진 마음은 물들임, 끓음, 이끼낌이 아니면 해탈한 마음이다. 부질없이 부추김이 있다 하더라도 부추김의 행가레를 타질 말아야 한다.

그러나 누구가 너 최고다, 너 아니면 안된다고 응수하여 주면 천지를 분간치 않고 나서기를 좋아한다. 이런 마음의 행보를 보고 부추김 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다. 어? 우리는 상가라경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차갑고 맑은 청정수가 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마음을 바르게 잡는 공부일 것이다.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주 5일 오후 7시 ~ 8시 30분까지
연구과정—주 2일 오후 2시 ~ 4시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2월 21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원전강독 Ⅰ	선종사상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대승불교사상사	불교미술	천 태 론	유식철학
연구과정	1학기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매학기 2과목씩 강의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동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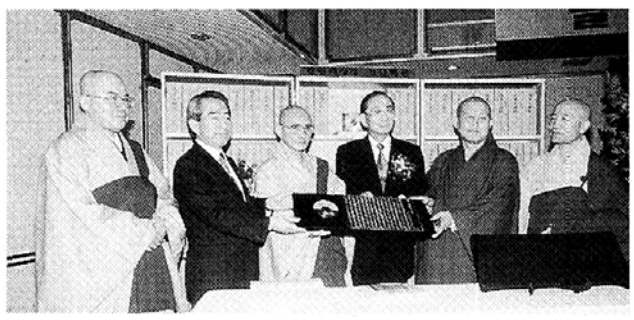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세계 통합전자대장경 길텄다

팔만대장경 CD롬 제작…각국 대장경전산화 현황과 전망

불전 대중화·불교사상 발전 기대 커
美·日·泰·유럽등선 소규모 수준 진행



◇지난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팔만대장경 전산화기념 리셉션에서 삼성문화재단은 월주스님에게 팔만대장경 CD롬을 전달했다.

방대한 팔만대장경이 한장의 CD-ROM으로 다시 탄생, 지난 19일 이를 기념하는 국제세미나가 열리는등 세계불교사의 새 지평이 열릴 전망이다.

이번 팔만대장경 전산화는 그동안 난제로 꼽혀왔던 '한문입력'이라는 방대한 작업을 세계최초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우선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런 외형적 성과외에도 세계무대에서의 불교 대중화를 통한 불교학 및 불교사상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불전 전산화를 선보이고 있는 나라는 태국, 티벳, 일본 세나라 정도. 그러나 이들이 완성한 팔리, 티벳장경들은 소승중심인데다 경의 규모가 작고, 알파벳으로 처리돼 있어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태국은 팔리어 대장경을 CD에 담아 판매중에 있으나 프로그램이 보편화 돼 있지않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단점, 즉 자국민만이 볼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티벳도 대장경 전산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몇몇 개인과 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도다.

따라서 이번 팔만대장경 전산화는 작업규모와 불교사적으로 볼 때 커다란 개가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이번 전산화작업은 세계의 모든 불교학 연구자들에게 방대한 불교경전을 접할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함으로써 불교학의 질적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타 학문과의 능동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불교사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이다.

기념세미나에서 논문을 발표한 랭카스터박사(미국 버클리대)는 이번 작업을 "휼륭한 업적"이라는 한 마디로 표현했다. 또 세계전자불전협의회는 오는 4월 타이뻬이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한국의 대장경 입력현황'을 세계 각국에 설명하고 그 의의와 성과를 소개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2년간 13억원을 투입한 팔만대장경 전산화는 아직도 많은 보완작업을 남겨놓고 있다.

대장경연구소 오태헌부장은 "현재까지의 작업은 전체작업의 10%수준에 불과한 상태지만 2천년까지는 어디에서나 누구든 쉽게 볼 수 있도록 전산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세계불교학계에서 주요 교본으로 쓰이고 있는 일본 신수대장경의 위치를 팔만대장경이 대신할 수 있음은 물론 한글대장경, 신수대장경등 현존하는 모든 대장경을 통합하는 '통합전자대장경 전산화'를 이룩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대장경연구소측의 전망이다.

한명우 기자

경주고속철 건천노선이 최적

생명민회포럼서 주장 '문화가 재화'…개발과 보존 경계 찾아야

지난 19일 '생명가치를 찾는 민초들의 모임(대표 김지하·약칭 생명민회)'이 주최한 포럼에서 김지하씨는 "고속철도의 경주통과노선 결정문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고려한 생명가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생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의 결정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親環境)적인 문화중심의 건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고속철 노선의 도심통과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태호교수(동국대 조경학과)는 '경주문화 이렇게 만들어 가자'는 논문 발표를 통해 "고속철 노선은 충분한 배후 개발지역 확보와 역사경관보호를 위한 규제조치가 전혀 없는 곳으로 경주 구도심과는 전혀 다른 현대도시의 기능을 갖춘 신도시 건설이 가능한 곳이라야 한다"며 유적과 문화경관의 보존이 가능한 건천노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또 상당부분의 문화유적과 역사경관을 파괴시키고, 환경피해가 클 것이란 점을 들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시설계노선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신문 이중환 논설위원은 "개발과 보존의 경계를 찾아내는 일은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국민이 요구하는 가치에 따르는 법"이라며 "모든 면에서 '문화가 재화'라는 인식을 정부가 가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관세음보살 자애한 모습 그려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법주사

補陀山上琉璃界
(보타산상유리계)
正法明王觀自在
(정법명왕관자재)
影入三途利有情
(영입삼도이유정)
形分六道曾無息
(형분육도증무식)
因脩十善三祇滿
(인수십선삼지만)
果脩千華百福嚴
(과수천화백복엄)
迴寶山王碧海間
(형보산왕벽해간)

원통보전

佩珠磋磲白衣相
(패주차거백의상)
無量光中化佛多
(무량광중화불다)
仰瞻皆是阿陀彌
(앙첨개시아미타)
應身各挺黃金相
(응신각정황금상)
寶榮都旋碧玉螺
(보영도선벽옥타)

보타산 위 맑은 세계에 계시는
정법명왕 여래이신 관세음보살님은
삼도와 지옥에 그림자처럼 들어가 모든 유정을 이롭게 하네
육도윤회를 갈라 놓아 다시는 윤회하지 못하게 하시고
3지(3아승지겁의 준말)에 가득 차도록 10선을 닦은 인연으로
천가지 영화와 백가지 복을 결실로 얻도다
푸른 바다 사이에 향보산왕(관세음보살)님
온갖 보배로 단장한 백의의 모습
무궁한 세월 동안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투시도다
우리러 보니 모두가 아미타불이요
모든 곳에 황금상으로 나투시며
거룩하신 부처님 이 세상 모든 곳에 두루 계신다

해설 원통보전은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건물이다. 건물이나 사찰의 격이 높을 경우 원통전이라 하고 격이 낮을 경우 관음전이라 통칭하는 것이다.

법주사의 원통보전은 보물 제916호로 팔상전과 함께 신라 후기에 창건된 것으로 짐작된다.

주련의 내용은 주불인 관세음보살님의 수행과 덕화를 찬탄하는 것이다. 첫구의 보타산은 관세음보살의 도량이다. 관음보살이 수행하고 많은 행화를 보이신 산이다. 관세음보살님은 그 도량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두루 굽어 보시고 지옥계까지 넘나들며 중생을 구제하신다는 내용의 이 찬탄문은 관음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쉽게 짐작케 한다. 그러면서도 관음보살의 화려하고 자애로운 모습을 상상케 하는 세밀한 묘사가 매우 마음을 끄는 것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직장상사가 이유없이 미워합니다

문 직장의 상사가 어느날부터 갑자기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사연도 없는데 사사건건 질책을 하는 바람에 이제는 직장을 그만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조필준·서울 동작구 상도동〉

답 불자라면 모름지기 내게 다가오는 경계를 공부의 재료로 삼아야 합니다.

'아차! 또 나를 공부시키려고 이러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직장상사의 꾸중이 심하다니 좀 어렵겠지만 그때마다 나를 위해, 나를 마음공부 시키려고 경책을 가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꾸로 그 상사에게 감사해야 하겠지요.

생각 한번 돌리면 고(苦)는 고가 아닙니다. 번뇌도 번뇌가 아니구요. 귀하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상사의 마음도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은 통신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한발 나아가서 그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스스로 믿어 보세요. 마음으로야 그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감싸 안든지 내 마음을 그의 마음에 포개든지 하면 둘이 아니지요. 그러면 내가 날보고 뭐라하든 그건 내 살림이 됩니다. 누구를 탓할 일도 없지요.

이왕 탓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세상에 남의 탓으로 돌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내가 있으니까 경계가 다가오는 것이지 없다면 미워하고 싫고가 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경계는 다 내탓인 것입니다. 내 탓으로 알아 참나가 나를 공부시키려고 기회를 주는구나, 그러니 고맙지, 감사하지 하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아무쪼록 생활중에서 부처님 말씀따라 배운다는 생각 잊지 마세요.

'돌장승' 화두 30년 계획 세웠는데

문 불자가 된지 25년쯤 됩니다. 그러나 공부에 진전이 없어서 최근엔 한가지 작심을 했습니다. '돌 장승이 얘기낳는 법을 알아야 불법을 안다'는 구절이 마음에 들어서 한 30년 해볼 작정입니다. 지도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택·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답 돌장승만이 얘기를 낳는게 아니라 고목도 얘기를 낳고 일체만물이 다 얘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획을 세워 공부하신다니 그럴려면 선생께서 먼저 얘기를 낳아 보세요. 돌장승이 얘기를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열개도 낳고 백개도 낳고, 그래서 그냥 하나도 되었다가 하나가 없기도 했다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얘기낳는 도리를 터득하려면 얘기를 낳아 보아야지요. 물맛을 알려면 물을 마셔보아야 하듯이 말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 해드리지요. 돌장승이 얘기 낳는 것도 너만이 알고 있어! 깨닫게 하는 것도 너고, 이끌어 주는 것도 너고,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너고, 장사가 잘되게 하는 것도 너고, 못되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 그렇게 돌 쪼듯이, 매사에 그렇게 해보세요. 계획세우지 말고요.

일이 뜻과 정반대로 벌어질 때는

문 저는 착한 행을 하면 복이 온다 해서 항상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제 뜻하는 것과는 달리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에 자주 부딪힙니다.

그럴때 이것 또한 인연법이니 하고 그냥 따라가야 합니까? 저항해야 합니까?

〈조인욱·대전시 동구 용운동〉

답 가르침을 믿을려면 철석같이,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맷돌의 아래 위 짝이 딱 들어맞아야 뭘 넣어도 제대로 갈려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심봉이 딱 맞아야 불이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 나무에 뿌리가 있으니까 가지와 잎이 있듯이 제 뿌리를 콱 믿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형상에나 매달리면서 믿는다 하시겠습니까? 형상도 둘이 아니오 마음도 둘이 아니오 부처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니까 빗나가게 믿지 마시고 심봉을 잘 끼워 100% 딱 들어맞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게 됩니다.

이왕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들면 크게 깨우쳐야 하겠지요! 그러니 나무가 뿌리를 믿듯이 일체를 법에 다 맡기고 심부름꾼으로만 사세요. 시자(侍者), 관리인! 사실 따지고 보면 심부름꾼이고 관리인입니다. 그 또한 둘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너 알아서 해! 나는 부지런히 뛸테니까! 하고 맡겨 놓는게 상책이 아닐까요? 훨씬 더 편하지요. 그러지 않고 이것은 내가 한다, 내가 짊어진다, 내가 산다, 내것이다… 이런다면 어휴! 그거 사람이 한 생을 사는게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겠어요. 맡겨놓고 푹 쉬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는게 낫지요? 어린 학생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믿고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어린 학생이 책 살 걱정, 공책마련 걱정, 옷 걱정, 밥 걱정 하던가요? 아빠 공책! 엄마 밥! 하면 척척 해결되지요.

그렇게 편하게 사세요. 안된다고 애태우지 말고 턱 믿으면서 말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 양성교육기관 부산불교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구분	제6기 포교사 과정	제7기 교리반
교육기간	1년(1996년 3월~97년 2월)	6개월(1996년 3월~8월)
교육일시	매주 목·금 오후 6시 40분~9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원서접수	1996년 1월 18일~2월 30일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등록금	입학금 5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30,000원	입학금 3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20,000원
특전	본대학 학칙에 따라 수료자는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로 품수함	수료자는 희망에 따라 포교사 과정 입학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대학 사무국 (☎ 051-818-8659 / FAX 807-7351)으로 문의바랍니다.

제7기 교리반 과정

불교학 개론, 불교문화사, 경전개설, 불교미술, 참선실수, 습의 및 특강을 개설하여 교계의 대덕 스님, 교수법사, 본 대학 강사가 쉽고 체계적으로 강의함

과목 및 강사

불타론	이하우 학장 (본대학 학장)
근본불교사상	이욱태 법사 (본대학 교무처장)
인도불교사	정인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반야사상	범륜 스님 (월간 「정토」 발행인)
법화사상	심산 스님 (통도사 부산포교원 주지)
정토사상	화랑 스님 (범어사 포교국장)
화엄사상	김용태 법사 (부산여대 교수)
불교사상사	류동호 법사 (광동고 교법사)
한국불교사	이하우 학장 (본 대학 학장)
비교종교학	최봉수 교수 (동국대 교수)
선사상	선과법사 (본대학 강사)
포교론	현익채 법사 (본대학 총무처장)
경전 개설	곽만연 교수 (동아대 교수)
불교미술	김용환 박사 (부산대 교수)
불교사회복지	고우익 법사 (능인고 교법사)
불교의식	문구암 스님 (부산시 무형문화재)

※ 야외법회 및 수련, 수계식 등은 별도 학사 일정에 의거 실시하고 성타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정관스님(범어사 주지), 도업스님(동국대 교수), 무비스님(전 범어사 강주)의 특강과 연수로 실시함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8/2
성원 서면주차빌딩 2층 화엄회관 (부산진구청 뒤)
☎ (051) 818-8659 / FAX (051) 807-7351

海東佛教大學
-통신 수강생 모집-

◉ 법사(法師) 과정
고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의 남녀.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단기간 내에 과정을 수료하여 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삼장법사(三藏法師) 과정
대졸 학력 이상의 불자,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 포교원 또는 암자를 설립·운영하실 분으로 불교지도자로서 자질에 손색이 없는 25세 이상의 남녀 불자.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국제 포교사(國際 布敎師) 과정
승속·성별·연령·학력 제한 없이 해외포교를 원하시는 분이거나 해외거주 동포로서 불심이 돈독한 분이면 가능.
■ 과목: 영어(필수)·해당지역언어·불교 전반
■ 시간: 매주 火·水·金 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
※ 통신도 가능

※ 본 대학에서는 87년부터 95년까지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불교관계 교수님과 석학 승려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통신강의 수업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통신 과정 수업은 시간·장소에 구애를 받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지금은 타계하셨거나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법사나 삼장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서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서·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시 입학 가능※
문의처: 110-320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10 경한빌딩 2층
해동불교대학 교무처 전화:741-0495~6 / 팩스:763-4603

海東佛教大學
학 장 장이두
대학원장 김지견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17기 佛教儀式(범음,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업 반: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 작법(나비춤) 등
■ 모집인원 : ○○명
■ 교육기간 : 3개월(각 과정)
■ 구비서류 : 본대학 소정원서 사진 1매
■ 원서접수 : 1996년 1월 8일 ~ 2월 15일
■ 개강일시 : 1996년 2월 15일 오후 5시 정각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10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에서 종묘방향
구산빌딩 앞 경한빌딩 2층
전화:741-0495~6 / 팩스:763-4603

海東佛教大學
儀式教育院
學長 張二斗
院長 鄭大隱

"나는 苦·病·死를 멸하겠다"

보르헤스의 ③ 불교강의

전설상의 붓다 〈1〉

마야부인은 꿈속에서
여섯개의 상아를 가지고
눈같이 흰 몸에
루비처럼 붉은 머리를 한
코끼리가 옆구리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불교강의 목차
제1장 전설상의 붓다
제2장 역사상의 붓다
제3장 불교에 영향을 준 사상들
제4장 불교의 우주관
제5장 윤회
제6장 불교교리:법륜과 열반
제7장 대승불교
제8장 라마불교
제9장 중국불교
제10장 탄트릭불교
제11장 불교윤리

붓다(佛陀)의 전설은 붓다가 누구였나를 보여주는 증거라기보다 붓다가 짧은 순간의 깨달음을 통해 도달한 경지에 대한 증거라고 여러 학자들이 지적했다. 학자들은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이야기 속에는 불교의 핵심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동의했다. 전설은 우리에게 수많은 세대에 걸친 선인(善人)들이 믿어 왔고 또 지금도 많은 인류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내용을 밝혀준다.

붓다의 전기는 하늘에서 시작한다. 보살('覺者'라는 뜻으로, 성불할 사람을 지칭. 여기선 전생의 붓다를 가리킴.)은 수많은 전생의 공덕에 의하여 신들이 사는 제4천(天)에 탄생한다. 그곳에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환생할 시간과 땅과 왕국 등의 인간세를 굽어본다. 네팔 남부 지방의 카필라 성을 통치하는 숫도다나 왕의 왕비 마야(이것은 환영(幻影)인 우주를 창조한 마술적 힘과 같은 발음이다)부인을 어머니로 선택한다. 마야부인은 꿈속에서 여섯개의 상아를 가지고 눈같이 흰 몸에 루비처럼 붉은 머리를 한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꿈이 깨자 왕비는 몸속에서 고통이나 이질감 대신 몸이 가뿐하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신들은 부인의 몸속에 신궁(神宮)을 창조한 것이다. 그 경내(境內)에서 보살은 기도하며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춘상원 부인은 해산하기 위해 친정 콜리성으로 가다가 카필라와 콜리의 경계에 있는 룸비니 동산을 지나가고 있었다. 무성한 잎이 공작새 꼬리처럼 반짝이고 있던 무우수(無憂樹) 한그루가 부인의 머리위로 가지 하나를 늘어뜨렸다. 부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가지에 달린 잎새를 받았다. 그 순간 보살이 깨어나 부인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오른쪽 옆구리로 나왔다. 아기는 일곱발자국을 걸어가서 상하 좌우 전후를 둘러보았다. 우주에 자신과 동일한 인물이 없다는 것을 보고 난 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첫번째 자요, 제일 높은 자이다. 이번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다. 나는 고(苦), 병(病), 사(死)를 멸(滅) 하겠다"

두조각의 구름이 몰려와 산모와 아기가 목욕할 수 있도록 찬물과 더운물을 부었다. 장님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절름발이가 걷고, 악기들이 절로 울려퍼지고, 제4천의 신들이 기뻐서 춤추고 노래했다. 지옥의 죄인들은 그들의 고통을 잊어버렸다. 같은 순간, 미래에 그의 아내가 될 야소다라와, 마부와, 말과 코끼리가 태어나고 후에 그 그늘 아래서 붓다가 정각을 이룰 보리수도 태어났다. 아기 이름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다는 뜻에서 싯다르타로 정해지고, 샤카족 가족 사이에선 고타마로 불렸다.

산모는 아기가 태어난지 이레만에 죽어 33인의 여신들이 살고 있는 하늘로 올라갔다. 예언자 아시타는 천신들의 환호성을 듣고 산에서 내려와 아기를 품에 안고 말했다.

"이분은 지극히 존엄하신 분이다."

그리고는 아기의 몸에서 선택된 자의 상호(相好)를 확인했다. 두개골 가운데엔 왕관모양의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눈섭은 소눈섭 같았다. 40개의 가지런하고 흰 치아, 사자같은 턱, 긴 두팔, 황금빛 피부, 손가락 사이엔 물갈퀴 등을 가지고 있었다. 발바닥에는 호랑이, 코끼리, 연꽃, 피라미드 모양의 메루산, 바퀴, 만자(卍字) 등의 각종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윽고 자신이 이미 너무 늙어버려 장래에 붓다가 설법할 법문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친 아시타는 눈물을 흘렸다.

해몽가들은 마야부인의 꿈 이야기를 듣고, 장차 태어날 아기가 왕위를 계승하면 세계의 주인인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될 것이며, 만일 출가하면 세계의 구원자(佛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숫도다나왕은 자신의 아들이 세계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개의 궁전을 짓고, 그 속에서 태자가 유한성(有限性), 고통, 죽음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태자는 언변술, 식물학, 문법, 격투기, 달리기, 멀리뛰기, 수영 등의 교육을 받고, 시험에서 항상 일등을 하였다. 특히 궁술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였는데, 싯타르타가 쏘아올린 화살은 그 누구의 화살보다 더 멀리 날아갔고 화살이 떨어진 곳에서 샘이 솟아났다.(이 샘을 찾아 나서는 모험이 키플링의 소설 〈킴 Kim〉의 주제이다.) 이런 무훈(武勳)들은 훗날 불타가 악마를 굴복시키고 거둘 승리의 상징으로 보인다. 왕자는 19세가 되자 결혼하게 된다.



◇마야부인은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꾼 뒤 싯다르타를 잉태했다. 이 부조물은 바르후트 난간기둥에 새겨진 것으로 기원전 2세기 작품이다. 인도 박물관 소재.



◇싯다르타 태자가 룸비니 동산.무우수가지 밑에서 마야부인의 옆구리로 태어나고 있다. 제작 연대가 2세기경인 이 작품은 페샤워르 박물관 소장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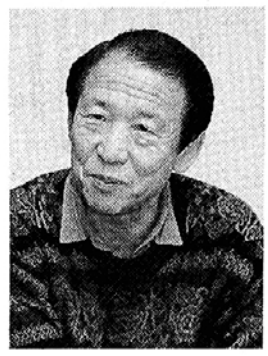
보살은 인간세상 구원위해 환생 "전륜성왕 오셨네"

아기이름 '다 이루어지다' 뜻가진 싯다르타로 지어

편역 김 홍 근
〈외대강사 · 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이 상 범 〈시조시인〉



불가와의 인연은 할머니 어머니에게까지 거슬러 올라 가야 한다. 그러니 생래(生來)적인 것이다. 초파일은 물론 명절이면 목욕을 하시고 머리를 곱게 빗으신 뒤에 티를 골라낸 쌀과 소지, 그리고 초등을 마련하여 절로 가셨다. 흰 옷을 입으시고 가족의 안위를 기원 하셨던 모습을 지금도 아련히 기억해 낸다.

무엇보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던 그것이 나에겐 신뢰와 큰 위안이 되어 주었다.성장하며 많은 변화속에 스스로를 추스려야 하는 과정에서 불교라는 크나큰 포용력은 시도(詩道)를 걸어가는데 힘이 되어 주었고 정신의 밑바탕인 자양이 되었던 것 같다. 때문에 시에 혼을 담고 기도(혹은 禪)를 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진수를 문득문득 대할 수 있었던 것은 경이(驚異)요, 지복이라 여기고 있다. 그래서 불음과 더불어 살아 간다는 신념으로 창작에 임하고 있다.

"불법은 내 詩作 이끄는 자양분"

禪·茶·詩 어울림서 '빈손' '기도' 의미 터득

높혀 줌으로써 수행을 하는이에게 도움의 손을 펼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차시(茶詩)도 그런 연유에서 나온 시다.

〈 1 〉
죽로차(竹露茶) 서너 모금 내장 깊이 흘려넣다
도시의 땟국이며 노독(路毒)마저 풀리는 소리.....
아, 육신 살로서 듣는 새울음의 산물소리.

〈 2 〉
반야차 자꾸 마시면 청청한 무엇이 될라
반야를 반야로 마시면 결국은 부처가 되는 걸까

두 손을 펴든 채 가을볕을 받습니다
하늘빛이 내려와 우물처럼 고입니다
빈 손에 어리는 어룽이 눈물보다 밝습니다.
비워둔 항아리에 소리들이 모입니다.
눈발 같은 이야기가 정갈하게 씻깁니다
거둘 것 없는 마음이 억새꽃을 흡습니다.
풀향기 같은 성좌가 머리위에 얹힙니다
죄다 용서하고 용서 받고 싶습니다.
가을 손 조용히 여미면 떠날 날도 보입니다.



'가을 손'이란 작품이다. 가을 손이란 바로 빈 손이다.또한 부끄러운 손이다. 겸허한 손이자 기도하는 손이기도 하다.그러기에 뉘우침의 손이기도 하다. 청명한 가을날에 자신을 맑게 비우며 삶을 터득해 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죽음 저쪽까지 환히 꿰뚫어 볼 수 있을듯한 마음자리를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는 것도 그때문이다. 이같이 순화된 정서와 심상은 시의 출발이자 결과라고 보아 큰 차질이 없을 것 같다. 이는 곧 불심의 근본과 상통하는 그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사실 불가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차(茶)와 무관할 수가 없다.물론 우리차인 녹차(작설차)를 비롯해 오룡차, 철관음, 보이차 등 종류는 많지만 그 효능에선 대동소이 하다고 본다. 피를 맑혀 정신의 강도를 연일은 부처를 마시며 허허 웃음 웃어 본다.

茶詩 '죽로차'에는 오염된 도시에서 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녹차 한모금의 기쁨과 고마움의 노래가 있다. 살로써 듣는 새울음의 산물소리가 그것이다. 땀을 흘리고 산을 오르고 산사에서 세수하고 마시는 녹차를 상상해 보면 그 경지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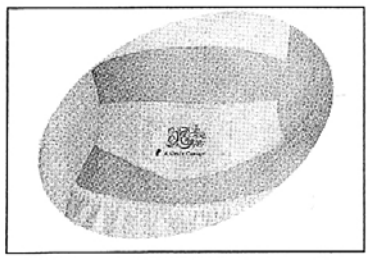
반야차는 품위있는 농이요, 덕담쯤으로 여겨도 좋겠다. 다만 언어 밖의 귀울림을 감지했으면싶다. 해인사의 종진스님이 모티브가 되어 썼던 '해인사 韻'을 옮기며 맺겠다.

눈빛 속 가야산이 아침세수 하고 있다
장삼에 이끌려 나온 골물소리 귀에 높고
풀다 만 불룩한 걸망 비늘 빛는 팔만대장경..

'해인사 운'은 대찰과 스님을 바라보는 나의 관견이자 시안이다. 이는 시의 본령이자 믿음의 핵이라 여기고 있다. 지금은 세계적인 유산이 된 팔만대장경은 걸망속에서 빛나고 있음을 불가의 모든 사람은 유념해야 할 때라고 본다.그것이 곧 불교를 정신적으로 한차원 더 높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1996학년도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통신 출강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 부처님 교법 따라 포교 · 정진 · 행동하는 대승의 법사!

■ 모집과정 : 법사과정 · 오종대법사과정
■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오종대법사과정 = 2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1월 5일 ~ 3월 15일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 품수와 소정의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자격고시 거쳐)

법사교육목적
본 대학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불교학문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불교발전과 정토사회구현을 위해 포교활동하는 불교지도자적인 대승의 법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韓國佛教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 - 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 737-5305
FAX : (02) 720-1836

교계출판 '기획서'로 불황 극복

'고승시리즈' 시장 개척 교두보…근대사 정리도

전문 필자 발굴등 '저작권료 암초 타개' 골몰

저작권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4월 총선등의 여파, 저작권료 부담에 따른 필자확보의 어려움 및 독자의 감소, 자본의 영세성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 한 해 출판계의 전망은 여전히 밝지 못하다. 그러나 교계 출판사들은 이같은 비관적인 상황에도 불구, '기획출판'이란 전략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시도가 민족사의 〈한국의 고승(전30권)〉 시리즈와 밀알출판사의 〈역대고승평전(전26권)〉, 우리출판사의 〈고승의 발자취(전20권)〉, 언어문화사의 〈고승열전〉, 불교시대사의 〈세계고승법문집〉 시리즈 등 고승관련 기획출판물이다.

민족사는 〈한국의 고승〉 시리즈를 통해 고구려 승랑스님으로부터 한암스님에 이르기까지 32명의 한국 고승들의 사상과 생애를 조명한다. 고승들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당시의 사회상까지도 충분한 문헌고증을 통해 분석할 이 기획물은 일반인을 위한 대중 교양서와 1차 학술자료의 성격도 갖게 된다. 특히 관련사진과 지도, 기존의 연구현황, 연표 등을 함께 실어 입체감있는 교양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97년 후반기에 10여권이 동시에 첫선을 보인다.

현대고승법어총서를 낸 바 있는 밀알출판사는 올해 〈역대고승평전〉 시리즈 26권 중 10여권을 낼 예정이다. 중고생 이상의 학생들도 볼 수 있는 소설형식으로 대중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우리출판사도 한글세대를 겨냥한 소설형식의 〈고승의 발자취〉 20권 중 10여권을 출간할 예정이다. BBS 인기프로인 현대 〈고승열전〉 시리즈 12권째를 내고 있는 언어문화사도 이달내에 운허스님 편을 내고 경허스님편도 준비하고 있다. 티벳 달라이라마와 일본 데시마루선사의 법문집을 펴낸 불교시대사도 곧 미얀마 티틸라스님의 〈그대 왜 아직도 미망에서 헤매는가〉를 내고 스리랑카, 태국 등의 고승법문집을 준비하고 있다.

불교학술서의 경우 민족사의 한국불교근대사 관련 기획물이 돋보인다. 민족사는 오는 5~6월에 〈조선불교〉 〈조선월보〉 등 불교잡지와 정부기록보존소의 문건, 정화관련 자료 등을 담은 〈한국근대불교학술자료총서〉 30여권을 출간, 근대불교사 연구자료의 95% 이상을 담을 계획이다. 또한 7월에는 김광식 독립운동사 책임연구원의 논문집 〈한국근대불교사〉 연구서를 발간, 본격적인 근대불교사 연구서를 낼 예정이다. 〈존재론·시간론〉과 〈인식론·논리학〉 등 불교학세미나 시리즈를 낸 불교시대사는 곧 〈인간론·심리학〉 〈종교론·진리론〉 〈교육학·윤리학〉 〈문학론·예술론〉 등을 잇달아 낼 예정이다.

'빛깔있는 책들'시리즈를 내면서 기획출판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대원사는 올해 〈철불〉과 〈불교공예〉, 사찰시리즈 〈금산사〉 〈화엄사〉 〈마곡사〉등을 출간, 올해안에 '빛깔있는 책' 시리즈 2백권을 채울 예정이다.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한 참신하고 독창적인 기획과 전문필자의 발굴, 장기적인 안목의 기획출판이 불황을 이겨내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참신하고 장기적인 기획출판으로 불황을 이겨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사진은 교계의 대표적인 기획출판물들

문화 유적 안내서 4권출간

4권의 문화유적 안내서가 나란히 출간됐다. 백제 절터 답사기인 〈한국의 폐사〉(한국문화사 刊)와 백제문화권 안내서 〈백제의 숨결〉(한국관광공사 刊), 〈문화의 산길 들길〉(화산문화 刊), 〈국토는 향기롭다〉(미래사 刊)등이 그것.

- 한국의 폐사 — 19개 백제절터 연구조사
- 백제의 숨결 — 백제문화권 관광 안내서
- 문화의 산길들길 — 유적발굴에 얽힌 이야기
- 국토는 향기롭다 — 시어로 순례하는 전통미

〈한국의 폐사〉와 〈백제의 숨결〉은 모두 백제지역의 문화유적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이중 백제권역의 절터만을 골라 답사한 〈한국의 폐사〉는 충청일보 이재준 편집국장이 20여년에 걸친 폐사지 답사의 연구결과를 모은 책이다. 〈백제의 숨결〉은 고대 일본문화에 영향을 끼친 백제문화권을 중심으로 한일간의 역사·문화적 연관성을 이용한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발간된 책자.

〈문화의 산길 들길〉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사무국장이자 문화재전문위원으로 있는 정재훈씨의 문화유적 이야기다.

이형권시인이 지은 〈국토는 향기롭다〉는 국토의 사연이나 문화유산의 이모저모를 아름다운 시어로 가늠하고 있다. 1부 '국토는 향기롭다'와 2부 '역사의 숨결이 깃든 곳'으로 구성돼 있다.

"日 8세기 유물 통일신라 관련 조명"

최재석씨 '정창원 소장품과 통일신라' 발간



지속적으로 한일 고대사를 연구 해오고 있는 최재석씨(고려대 명예교수)가 통일신라와 일본 관계 연구서인 〈정창원 소장품과 통일신라〉를 펴냈다.

일본 나라(奈良)의 한 절인 도다이지(東大寺)의 창고 정창원(正倉院) 소장유물의 제작국이 어느 나라인가에 촛점을 둔 저서로서 2백여점의 사진자료도 싣고 있다. 저자는 그 제작국을 확인하는데 8세기 당시 일본의 미술공예품 제작능력, 공예품의 재료, 항해기술, 불교의식구(儀式具)등 신라문양과의 비교 등등 15종의 시각에서 통일신라가 제작국임을 밝히고 있다. 〈일지사, 2만5천원〉

화제의 책

'눈물고인 가슴에…' 미영순 지음



30년 가까이 불완전한 시력의 암흑 속에 살면서 국내 몇 안되는 중국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미영순박사(북방연구소 연구위원)가 자전적 에세이를 펴냈다.

열여덟살에 갑작스런 실명으로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굳건한 불교신앙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며 마침내 중국문제 전문가로 다시 태어난 미영순박사는 한국의 헬렌켈러로 불리는 그의 삶과 열정을 감동적인 에세이로 엮어냈다.

고1때 대각사 룸비니학생회와의 인연으로 불교에 입문하게 된 그녀는 30년 가까이 불경을 손에서 떼지 않는 독실한 불자이다.

불심으로 장애이긴 삶과 열정 그려

블교신행관련 글을 모은 '보살이 열반에 들기를 거부한 뜻은' 편에서는 '해탈로부터 자유롭기를' 등 19편의 글을 통해 보살이 되고싶은 서원을 노래했다.

〈고려원, 7천원〉

일본은 가야인이 세운 분국 '확인'

고준환씨 '가야를 알면 일본의…' 일어판 나와



삼국시대보다는 가야를 포함한 4국시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학설을 담아 92년 〈하나되는 한국사〉를 베스트셀러에 올려 놓았던 고준환교수(경기대)가 이에 가야사를 더욱 보완한 〈가야를 알면 일본의 고대사를 안다〉를 최근 일본어판으로 출간했다.

이 책은 일본이 제기했던 '임나일본부설'이 허위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일본은 가야사람에 의해 세워진 분국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가야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공존했던 4국시대에 일본을 통치했던 신공황후는 가야 김수로왕의 딸 묘견공주로 이 묘견공주가 자신의 동생 선견왕자등 3천명을 이끌고 일본에 건너갔으며, 이것은 일본 구마모토縣 야스시로市의 김수로왕을 신주(神主)로 모시고 있는 묘견신궁에서도 확인됐다고 이 책은 적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 타	효 림
2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3	신통	혜 운	청 마
4	방한암선사	김 호 성	민 족 사
5	소설 등신불	석 용 산	문학수첩
6	금강경 이야기	법 륜	정토출판
7	도가 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깨쳤겠나	이 청	둥 지
8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9	한글 아함경	고 익 진	동대출판부
10	티벳 사자의 서	파드마 삼바바	정신세계사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잡보장경'



구 상
〈시인·예술원 회원〉

해방전 대학의 종교학 커리큘럼은 불교경전의 주석을 가르치는 과목이 60%이상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대 종교과에서 유학했던 나는 이 커리큘럼을 통해 불교를 좀더 깊이있게 체험하는 계기를 얻었다.

이때 인연이 닿은 경전이 〈잡보장경(雜寶藏經)〉이다. '부처님의 여러가지 교리를 담은 경'이란 뜻을 지닌 이 경은 모두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5세기말에 서역출신의 학승 길가야(吉迦夜)가 번역했다고 전해진다.

이 경은 선행을 장려하고 악행을 징계하라는 불교의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설화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은 부처님이 전생에는 중생들의 갖가지 고통과 불행을 구제하였고 현생에서는 사람들을 교화하여 선행을 닦게 함으로써 모두 다 하늘세상에 태어나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이야기들을 기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房舍施) 등이다.

이 내용을 보면 가진 게 없고 힘이 없어 남을 돕지 못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모두 보시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결과에서 기인한다.

진정한 베품은 어떤 소유물이나 능력을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지닌 인정(人情)을 베풀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상(相)을 내지 말고

권선징악 내용 담긴 설화집

무주상 보시 큰 의미 가르쳐

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경에서 감명을 받은 부분은 바로 제6권에 나오는 '재물 없이 보시를 베풀라'는 7가지 무재출시(無財出施)의 가르침이다. 말하자면 부처님이 재물을 손해봄이 없이 큰 보람을 얻는 시주법에 대해 설교한 내용이다.

그것은 첫째로 언제나 부모와 스승, 비구와 바라문들 등 사람들을 대할 때 밝고 정다운 눈으로 대해 주는 것(眼施)이고, 둘째 언제나 그들을 부드러운 얼굴로 화평하게 대해 주는 것(顔施)이며, 셋째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좋은 말로 대해주는 것(言詞施)이며, 넷째로 공경하고 예절바르게 대해주는 것(身施)이며, 다섯째로 너그럽고 따뜻한 착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이며, 여섯째로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베풀어 주는 것(床座施)이며, 일곱째로 방이나 집 등의 쉴

베풀라'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가르침을 쉽게 설명한 말씀이다.

흔히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으면 베풀기 어렵고 베푼 것이 많으면 상을 내지 않기가 어렵기에 부처님이 이러한 쉬우면서도 어려운 법을 설하셨나 보다.

성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걸 이웃에게 베풀라고 했지, 특수한 사람만이 가진 걸 주라고 하진 않았다. 인간의 원초적인 인정의 발휘 이외에 딴 것이 아닌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 예수님의 이웃 사랑, 공자님의 인(仁)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 모두 인간의 본성이 지닌 아름다운 인정을 진심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잡보장경〉은 실천하기에 따라서 너무나 쉬운 무주상보시의 방법을 내게 가르쳐 준 소중한 경이다.

믿음과 수행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불보살의 가피!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신국판 / 5,000원

祈禱 기도 —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Ⅰ.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Ⅱ.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Ⅲ.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Ⅳ.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Ⅴ.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Ⅵ. 기도인을 바른 길로

참된 자유와 깨어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는 대자비 법문

범망경보살계

제1~5권 / 신국판 / 각권 320면 내외 / 각권 6,000원

≪범망경보살계≫는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이신 일타큰스님께서 수십년 동안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무애변(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이다. 5부의 대작(大作)으로 보살계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장광설(長廣說)의 대자비 법문이다.

이미 보살계를 받으신 분, 대승불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 본래의 마음자리로 되돌아가 참된 깨달음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십시오. 무명의 업장이 걷히고 한없는 공덕이 생겨날 것입니다.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신국판 / 4,500원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큰스님 자신과 가족·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엮은 책. 이 책을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법공양문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스님께서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감로법문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듣는 것 만으로도 깨달음의 세계에 젖어들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불자들의 입문서 ≪초발심자경문≫ 세권의 해설서, 드디어 완간!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깊고 넓은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될 것이다.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 강설집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알기 쉽게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줄 것이다. 값 5,000원

아운비구의 ≪자경문≫ 강설집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스님이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해설했다.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신행의 나침반이 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3 팩스 : (02) 586~9078

BBS '의식찬불가' 5년 불사 회향

귀의·찬탄·공양·참회등 새 찬불가 100곡 마무리

불교방송이 새 찬불가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91년부터 추진해 온 〈찬불가 5개년 계획〉이 지난 23일 마지막 20곡을 선보인 '음악공양의 밤'을 끝으로 총 100곡의 새 찬불가를 탄생시키고 5년간의 작업을 회향했다.

귀의 찬탄 예배 공양 참회 발원 회향 절기 행사와 통과의례 등 10개 분야 의식용 찬불가를 제작, 매년 20곡씩 총 1백곡의 신작 찬불가를 선보여 온 불교방송 음악공양의 밤은 찬불가 보급의 활성화와 현대화에 크게 기여하는 무대로 주목받아 왔다.

불교방송은 그동안 음악공양의 밤과 더불어 신작 찬불가 악보와 가사집을 제작, 전국의 사찰에 보급해 왔다. 올해에는 신작 찬불가 1백곡 마무리 기념으로 악보 발간과 CD음반 제작을 통해 찬불가 보급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지난 23일 국립극장 대강당에서 95년 신작 찬불가를 발표하는 '음악공양의 밤' 공연은 불교방송 어머니합창단, 청룡사 마야합창단, 한마음선원 합창단 등 12개 합창단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치뤄졌다. 이날 공연에서 '참나를 찾아서'(황청원 작사, 조광재 작곡), '삼보에 귀의하오니'(정운스님 작곡, 강영화 작곡)를 비롯 새로 만들어진 20여곡의 찬불가가 소개됐다.

BBS의 의식찬불가 5개년 불사는 교리에 맞는 찬불가의 틀을 마련하고 법회의 음악회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처음 시작과 달리 일반 불자들이 따라 부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을 포괄해 누구나 즐겨 부를 수 있는 찬불가 제작과 사찰과 종단을 초월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찬불가집의 발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불교음악을 전담하는 전문인 양성과 찬불가 심의기구 마련 등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불교방송은 찬불가 1백곡에 대한 공가작업의 하나로 찬불가 세미나, 찬불가 선호도조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찬불국악 찬불가곡 찬불동요 등 세분화된 찬불가의 현상공모를 통해 의식부분에 치중된 찬불가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소년소녀가장돕기 불교음악회

한마음선원 신도회는 지난 20일 안양문예회관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 대행스님 초청 대법회 및 불교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각 지원 합창단은 '우리도 부처님 같이' 등 찬불가를 공연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찬불가 틀마련 기여… 악보·CD 제작 보급

23일 '음성공양의 밤' 12개합창단 참가 '갈채'

조계종 찬불가집 2월 발간

1백곡 수록…3월17일 기념음악회도

조계종 문화사회부는 기존에 나와있는 찬불가를 선별·정리해 이를 사찰·신도용으로 널리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1백곡 합동 찬불가집을 오는 2월 발간한다. 또한 합동 찬불가집 발간기념 불교음악회를 오는 3월 17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다. 이미 불교음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찬불가 관련 설문조사가 실시됐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의기구가 만들어진다.



'문학의 해' 선포 문화체육부가 제정한 '96 문학의 해 선포식이 지난 19일 서울 등승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서기원 문학의 해 조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학의 해를 하나의 발전적 계기로 삼아 문학인과 독자, 국민 전체가 우리 문학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학의 국제화를 이루자"고 역설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이수성 국무총리, 김영수 문체부장관, 문덕수 문예진흥원장, 신영균 예총회장, 시인 조병화씨 등 5백여 문인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최완수씨 '단원 김홍도 재조명' 발표

조선후기 최고화가로 꼽히는 단원 김홍도 탄신 2백50주년 기념특별전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단원의 예술세계를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지난 20일 열렸다. 세미나에서 '단원 김홍도의 재조명'을 발표한 최완수씨(간송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의 발표를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최완수씨

단원은, 조선이 중국에서 받아들인 주자성리학을 심화 발전시켜 조선 성리학으로 토착화시키면서부터 고유색 짙은 독자문화가 꽃피어 절정에 이르렀을 즈음 태어나 그 문화의 최후를 장식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화가이다.

우리의 산수를 중국 북방화법의 특징적 기법인 선묘와 남방화법의 특징인 묵법을 이상적으로 조화시켜 한 화면에 이 두가지 화법을 조화시킨 조선 고유색 짙은 진경회화를 창안하고 완성시킨 겸재 정선의 회화양식을 이어받아 세련미를 첨가해 다듬은 인물이다.

단원은 산수 인물 도석(道釋) 영모 화조 사군자 등 모든 분야의 그림에 뛰어났으며 특히 당시 생활상을 그려내는 풍속화와 신선과 고승을 그리는 도석화는 누구도 美아올 수 없게 뛰어났다. 풍속화는 물론이거니와 신선들이나 달마대사, 관음보살의 용모까지 중국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의 얼굴로 바꿔놓았다.

단원은 충실한 사생으로 일관하다 말년에는 생략과 여백으로 화면을 단순화시키는 시적 표현으로 바뀌고 사군자그림에서도 문기(文氣)를 중시해 기품을 잃지 않았다. 또한 단원은 새로운 회화물결의 새 벽을 예고했다. 용주사 후불탱화를 그리면서 서양화의 음영법 수용을 시도하고 있다.

고승·신선 그린 도석화 탁월

용주사 후불탱화에 서양화 음영법 수용

'구운몽의 작품세계' 인도 세미나

"육관대사 중국에 禪 전하는 이야기"

우리나라 고대소설의 최대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인도를 배경으로 한 '구운몽'의 작품세계가 인도에서 새롭게 조명됐다. 한인(韓印)문화연구회와 연세대 국학연구원, 인도 네루大가 공동으로 지난 30일 인도 네루대 한국학과 세미나실에서 '구운몽의 작품세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설성경교수(연세대)가 '구운몽의 주인공인 인도인 육관대사' 임성조씨(시인)가 '구운몽의 주제와 사상개요', 김양식씨(한인문화연구회장)가 '구운몽에 나타난 空의식'을 각각 발표하고 크리쉬난교수(네루대)가 '인도적 사유로 본 구운몽'을 발표했다.

설성경교수는 발표에서 "17세기 소설인 구운몽은 인도의 스승 육관대사가 중국에 禪을 전하는 이야기다. 이러한 공간설정은 조선조라는 유가시대에 유학자인 김만중이 불교의 위대한 지혜를 높이 평가했다는 것일뿐 아니라 부처님의 나라 인도의 정신세계, 큰 스승들의 위대함을 인정한 것은 김만중의 거시적이고 세계적인 시야를 보여준 것"이라 밝혔다.

또한 임성조씨는 '구운몽의 주제와 사상개요'에서 "구운몽은 空·대승사상의 진수를 깔파한 소설로 한국 禪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문학"이라 평가했다.

네루대학에는 올해부터 한국학과가 3년과정의 학사과정으로 인정, 본격적인 한국과 인도의 학문교류로서 의의가 더욱 깊은 이번 세미나 개최는 한인문화연구회 창립 1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41〉

오랑캐 베어 임금은혜 갚다

羽檄傳馳星火速 (우격전치성화속) 발통처럼 날아드는 격문과 전갈
義僧招集次第行 (의승초집차제행) 의승을 불러모아 차례로 사열하다
長旗幟影亂山岳 (장기치영란산악) 나부끼는 깃발에 산마루도 흔들리고
角唄高低動江城 (각패고저동강성) 퍼지는 나팔소리 강마을 요동한다
精鍊習操連九旬 (정련습조련구순) 고된 전법훈련 석달째 계속되고
巡更木鐸過三更 (순경목탁과삼경) 순찰하는 목탁소리 한밤을 지새운다
同盟插血抽寶劍 (동맹삽혈추보검) 피를 머금어 맹세하며 뽑아든 칼
斬盡胡兵報聖明 (참진호병보성명) 오랑캐 다 베어 임금은혜 보답하리

이 시는 허백당(虛白堂)대선사가 정묘호란(丁卯胡亂)에 승병대장으로 참전하여 지은 시이다. 조선조시대는 호란 왜란으로 불려지는 남북에서의 이민족 침입으로 큰 전란을 겪었다. 이러한 전란 때마다 의병을 일으켜 국가의 위난을 타개한 분들이 바로 당시의 큰스님들이다. 호국불교라 불려지게 되는 일면은 이런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하게도 된다.

인조 4년(1626) 봄에도 후금(後金·청나라의 전신)의 내침이 있었다. 이때 강원감사의 천거로 대선사께서 의병대장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 갑작스런 명에 의하여 4천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안주(安州)에서 훈련을 시작하여 전진에 임하게 되었다. 국경에서는 연일 오랑캐의 침입을 알려오지만, 모집된 승병들은 훈련된 군대가 아니라서 훈련을 새로이 시켜 전진에 투입해야 했다. 7월에 대장으로 임명되어 그 해 가을을 내내 이렇듯 신병훈련의 고된 나날을 지내야 했던 3개월이었던 것 같다. 낮에는 훈련 밤에는 순찰로 여념이 없는 병영의 하루하루였던 것이다.

이 외로운 일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가 피로 맹세한 동지들이다.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이 위급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저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이 나라의 백성이 된 도리이다. 스님도 이 나라 백성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내 한 사람으로서의 몫이 아니라 대장으로서의 몫이 되었으니 수천 수만의 병사의 몫을 다해내야 한다. 이것이 피로 맹세한 할맹이다.

조선조시대의 어려웠던 국난은 거의 스님들의 의거에 의해서 극복되었던 것이니 이 또한 대비동체의 보살정신의 발로이었다.

위의 시는 이러한 역사의 흔적을 음미하기에 적절하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고속철도 경주통과 반대 지상전

두시영作 춘·하·추·동—소나무

도서출판 여시아문 —출판 예고—

행복과 불행 한몸의 두 얼굴

—'독자'와 '저자'가 함께 만드는 책—

우리는 누구나 조금씩은 행복하기도 하고
조금씩은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를 보면 내가 행복한 일에
다른 사람은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과 불행은
절대가치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에서는 '저자는 쓰고 독자는 읽는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독자와 저자가 함께 만드는 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반품은 독자가 만든 책인 셈입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다른 개성의 소유자인만큼 행·불행에 대한 생각들도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털어 놓고 행·불행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만큼 닮아 있고, 얼마만큼 다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도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내 일을 남의 일처럼,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편의상 행·불행이라 말했을 뿐, 살아가는 일 그 자체에 대해 '내가 만드는 심리 처방전'인 셈이지요.

좀더 구체적으로는 **'독자'**와 **출판사**와 독자를 대표한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와 함께' 조금은 색다른 형태의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서출판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우편번호 : **110-170**)
전화 : **02) 737-8881** / 팩스 : **02) 737-0697**

아래의 난에 아무 격식 없이 생각나는 대로 써 주십시오.

(나이 성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
가정에서		
직장(학교)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밖에		

위 설문지를 그대로 오려서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팩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책이 출판된 후, 책지와 함께 작은 기념품을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10-170 종로구 견지동 110-33 (주)현대불교신문사 출판국 / 전화 (02) 737-8881, 팩스 (02) 737-0697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44〉

芙蓉楷禪師小參 (부용해선사소참) ①

夫出家者 爲厭塵勞 求脫生死
부출가자 위염진로 구탈생사
休心息念 斷絶攀緣 故名出家
휴심식념 단절반연 고명출가
豈可以等閒利養 埋沒平生
기가이등한리양 매몰평생
直須兩頭撒開 中間放下
직수양두살관 중간방하
遇聲遇色 如石上栽花
우성우색 여석상재화
見利見名 如眼中着屑
견리견명 여안중착설

대저 출가란 티끌세상의 노역을 싫어하여 생사해탈을 구하며
마음과 생각을 쉬어 인연에 얽매이는 것을 끊고자 함이라 고로 출가라 이름한다.
어찌 마음공부를 북돋아 기르는데 등한 함으로써 평생을 묻어 버리리요.
모름지기 바로 두 머리(근과 경)의 빗장을 풀고 (공한 줄 알고) 중간(의식계)도 놓아버려
소리듣고 색을 보매 돌위에 꽃을 심는 것 같이 하고
이익과 명예를 보매 눈에 티끌이 든 것 같이 해야할 것이다.

已從無始以來 不是不曾經歷 又不是不
지종무시이래 불시부증경력 우불시부
知次第
지차제
不過貪頭作尾 止於如此 何須苦苦貪戀
불과번두작미 지어여차 하수고고탐련
如今不歇 更待何時
여금불헐 경대하시
是以 先聖教人 只要盡却今時
시이 선성교인 지요진각금시
能盡今時 更有何事
능진금시 경유하사

하물며 무시이래로 좇아 일찍이 거쳐오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또한 다음 차례를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님에랴.
머리를 돌이켜 꼬리를 지음이 이같은데 그침에 불과하니(꼬리를 물고 이어져 여기에 이름에 불과하니) 어찌 모름지기 괴롭게 욕심 내며 그리워하리오.
지금 (헐떡임을) 쉬지 않으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는가.
이러므로 역대 성인들이 사람을 가르치되 다만 지금 이 순간에 몰락 놓을 것을 요구하니
능히 이제 다 놓으면 다시금 무슨 일이 있으리오(할일을 다 마침이라).

若得心中無事 佛祖 猶是冤家
약득심중무사 불조 유시원가
一切世事 自然冷淡 方始那邊相應
일체세사 자연냉담 방시나변상응
作不見 隱山 至死 不肯見人
작불견 은산 지사 불긍견인
趙州 至死 不肯告人 匾檐 拾橡栗爲食
조주 지사 불긍고인 편첨 습상율위식
大梅 以荷葉爲衣 紙衣道者 只披紙
대매 이하엽위의 지의도자 지피지
玄泰上座 只着布
현태상좌 지착포
石霜 置枯木堂 與人坐臥 只要死了作心
석상 치고목당 여인좌와 지요사료나심
投子 使人辦米 同煮共餐 要得省取作事
투자 사인판미 동자공찬 요득성취나사
且從上諸聖 有如此榜樣
차종상제성 유여차방양
若無長處 如何甘得
약무장처 여하감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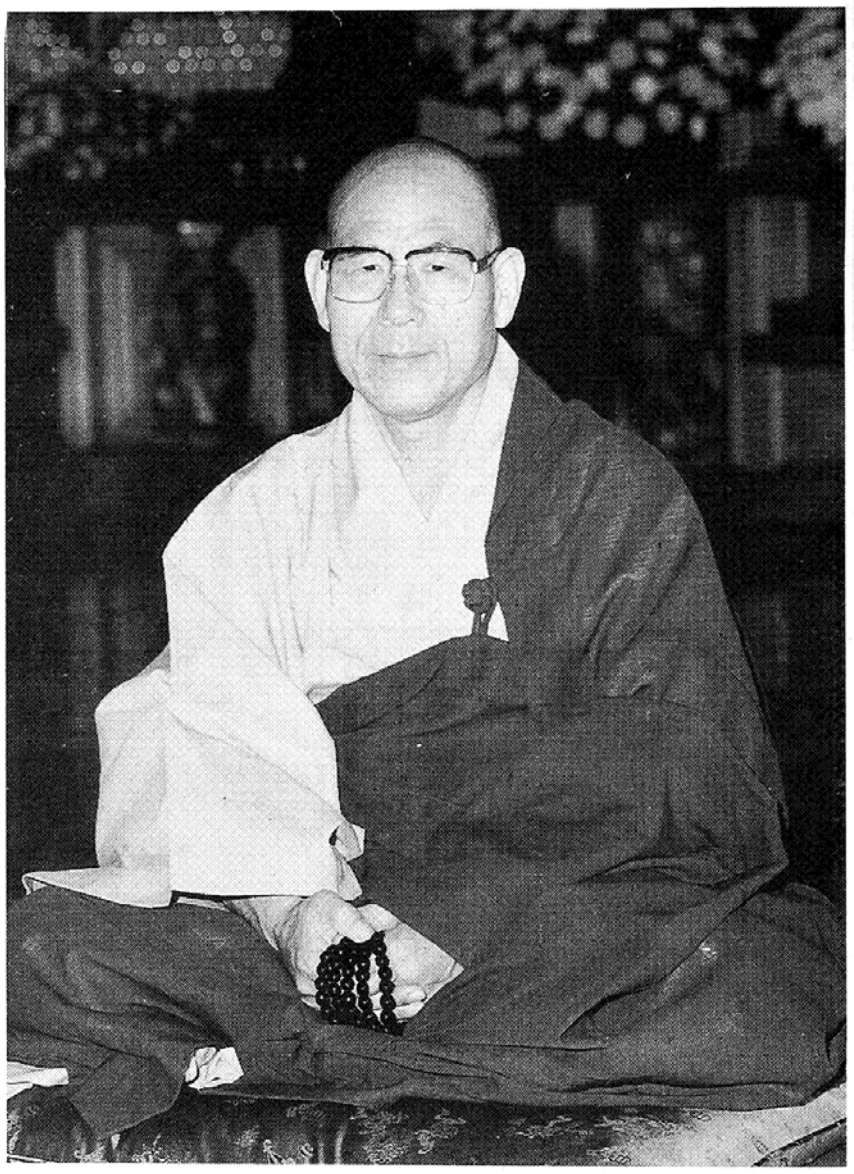
만약 마음 가운데 (짓는)일이 없으면 부처 조사도 오히려 원수의 집이라,
일체 세간사에 절로 흔들림없이 담담하여 바야흐로 저변(본분·열반)에 상응할 것이다.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은산스님(중국 용산화상)은 죽을 때까지 사람 보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조주스님은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말이르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다만 '차나한잔 마시게' 하였을 뿐) 편첨스님(육조제자 효료선사)은 도토리와 밤을 주어 양식으로 삼았고,
대매스님(마조의 제자 법상선사)은 연잎으로 옷을 삼았고 지의도자(임제의 제자 극부)는
다만 종이 옷을 걸쳤고
현태스님은 다만 베옷만을 입었으며
석상스님은 고목으로 집을 삼아 대중과 더불어 지내면서 '다만 죽어서 네 마음 알아 마치기' (번뇌심이 죽어야 참 면목 보리라)를 요구했고
투자스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쌀을 마련케(농사지어서)하여
같이 끓여 먹으며 일마다 살펴 요득케 했다.
또 위로부터 모든 조사·성인이 이같은 본보기를 보였나니
만약 좋은 점이 없다면 어떻게 달게 받아들였겠는가. 龍眼

"번뇌심이 죽어야 진면목 볼수 있으니 이제 빗장풀고 의식계를 놓아버려라"

★ 지상법석

"작은 善 하나하나가

벽파스님 〈부산 금강암 주지〉



약력
- 1951년 범어사 동산스님 은사로 득도
- 범어사 강원 대교과 졸업
- 범어사 주지 역임
- 현 종립 해동중 이사장, 동국대 학교 이사

우리 불자들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산사나 도심의 포교당 혹은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염불 참선하는 신앙생활은 인간으로 태어나 복된 일과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가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데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방황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목표가 분명해야 불퇴전의 신심으로 정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망망대해를 건너는 배는 나침반의 지시를 따를 때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 수행생활 혹은 신앙생활의 점검도 기준이 있어야 정도를 걷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은 사상이 범람하고 신흥종교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곳곳에서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확고한 신념과 정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염불할 때에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지하여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안녕을 위하여 작은 바램들을 기원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되는 나고 죽는 문제의 해결, 즉 생사해탈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시어 고행하시고, 정각을 이루시고, 49년간 고구정녕히 말씀하신 거룩한 일생의 업적이 모두 생사해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이 수행을 통해 쌓은 모든 공덕의 회향처는 당연히 생사해탈에 두어야 하며 자신이 올바른 수행의 노정에 서 있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는 부처님의 말씀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망망대해의 배는 나침반따라 항해하듯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 윤회굴레 벗어야"

비록 부처님께서 49년동안 소승과 중승, 대승의 근기를 위하여 차별적으로 아함경을 설하시고(阿含十二), 방등경을 설하시고(方等八), 반야경을 설하시고(二十一會談般若), 법화, 열반경을 설하셨다고(法華涅槃八年說) 하지만 차별적인 근기에도 불구하고 설하였다는 목표는 생사해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망망대해의 바닷물이 어느 곳에서 맛을 보아도 한맛인 것과 같습니다. 다시말해 사성제(四聖諦), 12연기법, 반야사상, 여래장사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하근기를 위하여 설한 것이라고 수준 낮은 불교로 취급당하곤 하는 인과응보의 도리, 육도윤회설까지 12부경전 모두가 생사해탈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고 있으며 머나먼 구도길의 훌륭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길은 출가하여 수행에 전념하는 출가 수행자와 생업에 종사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재가자가 있습니다. 이 두 길은 비록 생활방식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목표가 같기 때문에 사상을 공유하며 불국토 건설을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양자의 관계는 수레의 두바퀴에 비유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심오하며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 믿고 따라야 할 가르침은 인과법(因果法)이라 생각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거나 현실을 보더라도 인과법의 도리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이며, 각종의 종교와 온갖 생명, 자연세계의 갖가지 현상 사건을 막론하고 인과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교해서 우월성을 갖는 것이며 삼천년 가까이 인류의 등불이 되어 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세계에는 종교와 철학사상이 무수히 많습니다. 신(神)을 전제로 하는 종교가 있고, 운명론을 신봉하거나 우연론을 주장하는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나 철학사상과는 달리 불교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성립되는 과정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인과법의 도리는 사건의 발생뿐 아니라 물질적 존재의 성립과정 및 정신세계에까지 적용되어 중생의 육도윤회와 생사해탈의 구도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신(神)의 조화라고 말한다면 인간은 스스로 지은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허점을 낳게 될 것이며, 운명론에 안주하게 된다면 인간의 노력은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연론을 주장한다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되어 바람에 뒹구는 낙엽에 불과한 존재로

다이어트 특효감비식품 국씨전영양소

— 다른 다이어트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국씨전영양소 —

단, 5일 복용으로 2~5kg 이상의 감량!!

국씨전영양소(특효감비)의 특징
- 세계최초로 완전한 천연 영양식의 감비방법으로 다이어트의 신개념을 창조
- 인체의 내분비 기능을 조절하고 지방질의 신진대사 기능을 변환
- 하루만에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하루평균 0.5kg의 체중을 감량
- 표준체중까지 감량되고 감량된 체중은 재차 늘지 않도록 유지
- 맛이 좋으며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병을 치료
- 완전한 천연식품이고 어떠한 독성, 부작용이 일체 없다

이런 분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 남·녀·노·소 누구나 비만으로 고민하시는 분
- 다이어트를 시도,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 분
- 고혈압·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
- 지방간이나 어지러움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다한증(땀이 많이 남)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변비나 치질로 고생하시는 분
- 노화지방이나 피부미용을 원하시는 분
- 수험생의 지능향상을 위하여
- 성장발육이 부진하여 성장발육을 원하시는 분
- 체중조절이나 체형유지를 원하시는 분

성분 및 배합 비율
쌀가루 3%, 밀가루 0.8%, 보리가루 3%, 완두콩분말 3%, 콩분말 50%, 대추분말 2.5%, 연뿌리분말 1%, 호두분말 4%, 땅콩분말 1%, 다시마분말 2%, 김분말 3.5%, 굴분말 0.7%, 계란노란자건조분말 0.5%, 기타 25% → (계:100%)

중국 양귀비시대의 궁중요리 「약선」의 이론을 응용한
미용, 건강, 장수를 위한 다이어트 건강식품 「국씨전영양소」

비만의 원인은 지방대사의 불균형
제가 감비에 관해 연구를 시작한 것은 중남해(중국 정부고위간부 전용숙사)에서 몇명인가의 정부 고관이 비만으로부터의 병으로 사망하는 것을 본 이후 건강을 유지하면서 장수하기 위해선 우선 비만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 저는 고대 중국의학의 처방을 채용해 영양학의 관점에서 비만의 원인을 영양의 과잉섭취가 아닌 영양의 부조화와 내분비 실조, 특히 지방대사 불균형에 의한 것임을 이론으로 확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직접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지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약선의 이론을 응용한 건강식품 「국씨전영양소」를 개발한 것입니다.

국씨전영양소는?
국씨전영양소는 일종의 특효 다이어트 식품이다. 중국 모택동, 등소평 및 고급 간부들의 주치 영양사이며 **저명하신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원 교수가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생리 전문가들의 협조하에서** 비만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한 한방비법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연구, 제조하여 "중국의 여자역도" 선수들의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은 **완전한 천연, 영양 다이어트 식품**이다. **국씨전영양소**는 중국과 미국의 합자된 회사제품이며 **복용 5일이면 최저 2kg에서 최고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되며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불필요한 비만과 몸의 노폐물을 제거함으로써 혈액순환은 물론 혈압과 당뇨 등 각종 질병의 신비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개발자 국민원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물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입소
1978년 中南海(중국 고위 간부 주거지/모택동, 등소평 등 역대 중국고위관리) 食品營養 고문 임명, 현 재임중
1985년 감비식품 연구 착수
1992년 8년 만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완료
현 북경대 교수

문의전화
서울·기타지역 : 02-929-0211
부산·경남지역: 051-817-0337
(동원당)

지상법석

해탈 성취하는 씨앗"

"한알의 씨앗을 심으면 한 말의 열매 걷고 한 마리 고기 방생하면 무수한 생명 번식"

인과는 삼세순환 … 현재 바로 보고 쉼없는 정진을
출가·재가 생활 달라도 한 길가는 수레의 두바퀴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인과법의 도리는 신본주의(神本主義)와 운명론 및 우연론의 벽을 넘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게 함으로써 도덕과 윤리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가장 합리적인 철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인과법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의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현실에서 어긋나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즉 업인(業因)은 있는데 과보(果報)가 없거나, 과보는 있는데 업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현실세계에서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과법의 도리에서 본다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한 생애 또는 한 번의 성립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연속되는 삼세인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업인이 있어도 현세에 과보를 받지 않으면 내세에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현세에 과보가 나타났으나 업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그 업인이 과거세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과관계는 한 생애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때로는 과거의 인(因)과 현재의 과(果)라는 긴 세월을 두고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인과관계는 성립의 과정이 짧을 수 있지만 총보(總報)는 과거의 업인이 현재의 결과를 낳고 현재의 결과는 미래의 업인이 되어 단절됨이 없이 연결되는 순환의 역사를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과법의 이러한 도리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해결하고 한 생으로써 마감되는 인생이 아니라 삼세를 순환하는 인생임을 강조하여 부단한 수행정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불교사상을 근거로 하여 인과법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는 선지식 '운서주굉'의 문답을 통해 풀어 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물었다.

"여래의 신통력은 불가사의 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악인으로 하여금 현생에 나쁜 과보를 받게하여 날마다 조심하여 감히 악행을 짓지 못하게 하지 않으시며, 선인은 현생에 좋은 과보를 받게하여 날마다 더욱 선행에 힘쓰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히 천하가 태평할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아! 업보가 빠르고 더딤이 있는 것이 중생의 업보로 자연히 그러하게 되는 것일 뿐 비록 대성인(大聖人)일지라도 능히 빠른 것을 돌려 더디게 하지 못하며 더딘 것을 앞당겨 빠르게 하지 못한다.

오직 인과는 헛되지 않고 빚갚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입이 쓰도록 가르치실 뿐이다. 듣고도 믿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다.

또 물었다.

"영가대사가 말하기를 '깨달으면 업장이 본래 공하다'고 하였습니다. 공하다면 어찌 인과와 빚갚음 따위가 있겠습니까?"

"그대가 지금 깨달음을 얻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응당 묵은 빚을 갚아야 한다."

인과법의 도리는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라는 인과를 낳게 되어 일상생활의 도덕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는 법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간적인 도일 뿐이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출세간적 도란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생사해탈에 있는 것입니다.

인과의 도리는 이와같이 삼세를 거쳐 간단없이 변화무상을 계속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삼세인과를 성립시키는 어떤 실체를 가정할지 모르지만 이 시점에서 불교의 진면목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불교는 삼세인과를 설하여 업을 짓는 한 그에 상당한 과보를 응당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무아(無我)를 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순이 아닌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세를 연결짓는 실체가 있다면 이 몸을 버리고 새로운 과보를 얻기도 힘들뿐 아니라 본질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중생이 부처로 전환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실체가 있는 육도의 윤회라면 사람이 짐승 탈을 쓰고 짐승이 사람 탈을 쓴 격이 되는 우화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이나 생명도 미찬가지이겠지만 중생이 중생으로서의 실체를 고집한다면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성을 고집하지 않고 인연따라 새롭게 생성 변화하는 무상의 도리에 의하여 무엇으로도 가능한 공의 상태에 있는 것이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수행의 힘을 빌어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인과법 굳게 믿어
> 육바라밀 실천하고
> 열가지 선업 생활화하면
> 正道는 저절로 열려"

무아의 상태에서 인과가 성립됨을 〈잡아함경〉에서는 "업의 과보는 있지만 그것을 짓는 자는 없다"라고 극히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본질이 공인데도 불구하고 중생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허구적인 관념에 불과한 것이며 가아(假我)를 자아라고 집착하는 허망된 관념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구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아를 증득(證得)하는 것이 해탈로 향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불교를 불교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아설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인과법을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간단히 마칩니다.

무아상태에서 인과법이 성립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지만 자아를 가정하든 무아라고 이해하든 실체의 유무에 무관하게 인과의 법칙은 현실과 역사속에서 엄연히 작용하고 있으므로 인과법의 도리가 세간적 생활이나 출세간적 수행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을 심으면 한 줄기 싹이 피어나 끝내는 한 말의 열매를 거둘 수 있고 한 마리 고기를 방생하면 무수한 생명을 번식시킵니다.'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은 온 연못을 출렁이게 하고 참을 인자 하나에 온 가족이 화목합니다.'

악은 악을 낳고 선은 선을 낳는 도리가 여기서 분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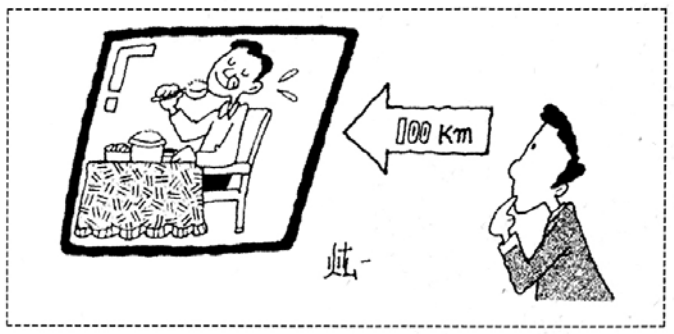
'한 사람의 작은 보시는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키고 인욕은 화목의 인이 되며 성취는 정진의 과보입니다.'

안전(眼前)에 펼쳐진 세계를 바라보나 현재의 자신을 바라보나 인과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통도 업인이 있고 행복도 업인이 있습니다.

작은 선 하나 하나가 헛되지 않고 해탈을 성취하는 인이 됩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인이 되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과보로서 다가옵니다.

우리는 윤리와 철학의 양면성을 지닌 인과법을 굳게 믿고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열가지 선업을 생활화 한다면 현세의 삶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충만하여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이미 해탈로 향하는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법장비구는 48원을 인(因)으로하여 아미타불(果)을 성취하셨고 석가모니 우리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겠다는 서원을 인(因)으로하여 정각(果)을 성취하셨으니 우리 불자 모두가 바른 인(正因)을 심어 쉬지 말고 정진하여 정각을 성취합시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55

양 형 진

상대론

일체사물 서로 끝없이 의존하며 존재
마음에 그려지는 세계는 인식따라 변화

상대론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론이나 일반 상대론을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물리학에서 상대론의 역사는 적어도 갈릴레이에게까지 올라가게 된다. 갈릴레이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고전 물리학에서 상대론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일상 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보도록 하자.

우리가 어떤 물체의 속도를 관측한다고 하자. 정지하여 있는 채로 어떤 나무를 관찰한다면 그 나무의 속도는 물론 0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무의 속도가 0 이라는 관찰 언명이 과연 보편적인 것일 수 있는가? 시속 100km 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같은 나무를 관찰한다면 그는 그 나무가 시속 -100km 의 속도를 가졌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물체의 속도라는 물리량은 그 물리량을 관측하는 사람의 운동 상태가 규정되지 않고서는 전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의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관측자와 관측 대상 사이에 상대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고전적 상대론이다.

물리 이론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들릴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단순히 물리 이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직접 체험 가능한 것이다. 기차 안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를 살펴본다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시속 100km 로 달리는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관찰할 때 자신의 수저 안에 들어 있는 밥알은 정지해 있다. 그러나 기차 밖에 있는 사람이 관찰한다면 그 밥알은 시속 100km 로 달려 간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밥알이 100km 로 날아온다면 식사같은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물리 현상을 추상적으로 이론화하여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어떤 물체가 정지하여 있는가 아니면 움직이는가 하는 질문도 또한 이를 관측하는 관찰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규정해야만 비로소 가능해 진다. 다만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나무가 정지하여 있고 기차 안의 밥알이 100km 로 날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지구 위에 고정되어 있는 관측자를 전제하고 하고 말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제에 익숙해지다 보니 그러한 관측자를 절대적인 것으로 믿게 되지만, 사실상 모든 운동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론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도 아니요 깃발도 아니라 나부끼는 깃발을 보는 사람 자신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緣起)에는 여러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는 인연에 연하여 과가 생기한다는 인연기생(因緣生起) 혹은 인연에 의하여 과가 생한다는 피연생과(彼緣生果)라는 뜻이다. 연기의 두번째 의미는 상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체의 존재는 자성을 가지고 독립자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끝없이 의존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연기는 곧 무상이고 무아이며, 이는 또한 공이나 중도와 연관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위에서 논한 상대론의 이야기는 연기의 세번째 의미와 상관한다. 이는 어떤 관념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 세계에 대한 관념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이며 또한 세계가 나에게서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것도 역시 인과이기는 하지만 이의 원인은 객관 세계이며 결과는 주관 세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관 세계는 주관과의 연관에서 볼 때 그 자체로서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주관 세계는 객관 세계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 세계에 와서 객관 세계는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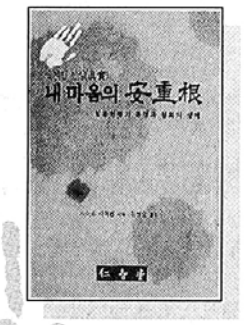
물리학에서 관찰자가 기술하는 객관 세계의 운동 상태가 나의 운동 상태에 의하여 규정되듯이, 내 마음에 그려지는 객관의 세계는 내 마음의 상태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이다.

물론 안(眼)과 색(色)에 의하여 안식(眼識)이 얻어지듯이 우리의 식(識)도 근(根)과 경(境)에 의존하는 상대적인 것이지만, 경에 의하여 식이 절대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과 식의 역동적 상호 연관 아래서 우리의 인식 세계가 구성되는 것이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見利思義見危授命
이로움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주라

大韓國人 安重根 義士 ····

옥중 安의사의 간수였던
일본 헌병이 존경과 참회로
바라본 *인간 안중근.*
약사암의 一如스님이 번역하여
국내 처음 공개되는 자료들!
놀라운 장면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네가 공소를 한다면 그것은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되고 만다. 네가 나라를 위하여 이에 이르렀은 즉 죽는 것이 영광이나 모자가 이 세상에서는 다시 상봉치 못하겠으니 그 심정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으리……."
(安義士 어머니가 상고를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라는 충고)
–본문 중에서–

연락처 : (053) 825-0803, 藥師庵 一如

이 시대 최고의 충격적인 신간
신비한 부적의 세계
내가 만드는 행운의 부적
운담 엮음

부적이란
신도들의 행간별과 타인들이 고통을 받을때에 하여 시그를 방지하는 또이는 서적의 신호라면 부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어있고 통일하는 신호라 할 수 있다.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운은 이 책안에 있습니다

행운을 잡고 싶은 모든 분들께!
▲신년 대운을 잡는 비결부
▲입학, 취직, 승진 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는 비결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비결부
▲연예인을 비롯한 인기인이 되는 비결부
▲운동선수가 되는 재능을 얻는 비결부
▲부자가 되는 비결부
▲귀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인연성취 비결부
▲사업을 성공시키는 만사형통 비결부
▲삼재소멸 비결부
▲팔리지 않는 집, 땅, 점포를 잘 팔리게 하는 비결부
▲화·재앙을 피하는 법과 꿈해몽

운담 엮음/신국판/328쪽/값12,000원

침묵의 소리 홍명스님 지음 값 8,000원
여보게, 무엇을 그렇게 고뇌하는가 홍명스님 지음 값 7,000원

출판사 깨침의 소리 전화 : 02·444·3575 5310 팩스 : 02·5436·1064
출판사 종로서적 전화 : 02·732 5381 팩스 : 02·732·6202

청년불자를 위한 열린마음·열린세상
석용산스님 초청 대법회



"스치듯 눈빛들 추워…… 두루마기 던져주고
움츠리는 몸짓들 시리어…… 속옷 벗어주고"

석용산 스님의 하얀 비늘들이 반짝거리며 살아 오릅니다.
열린 마음, 열린 세상은 석용산 스님의 염원만은 아닐 것이며, 우리 청년불자들의 모든 가슴들에 일어붙어 있던 빗장을 활짝 열고 새시대의 주역으로 일어서려는 거룩한 발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부처님 말씀 따라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대원력으로 소중한 인연 가꾸는 자비의 텃밭이 되는 대법회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 이상대 합장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주요활동

국제활동
일본,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대만, 홍콩, 스리랑카, 싱가폴, 네팔, 미국, 인도의 불교청년회(한국 포함 13개국 33개지부)와 함께 세계불교청년우의회(WFBY)를 통한 국제 교류
1. 매년 8월 6일을 세계평화의 날로 지정하여 8월 첫주중 각국별로 명상(참선) 행사 추진
2.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세계대회에 참가
3. 2년마다 세계불교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4. 매년 개최되는 세계불교청년우의회 지도자교육 참가

전국활동
대한불교청년회 2개 직할 및 15개 지구산하의 237개 지회들과 교류
1. 국민제휴카드 발급으로 조직전산화 및 재정 자립
2. 매년 전국불교청년대회 참가
3. 매년 전국 불청지도자 연수 교육 참가
4. 만해 한용운 스님 기념사업(만해 백일장 및 회관건립 등)

지역활동
1. 불교 교리 강좌 및 수련대회
2. 생명공양운동 / 헌혈 및 장기기증
3. 경로잔치
4. 천마재활원 봉사활동
5. 용두산공원 무료 국수 공양
6.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활동–공명선거 캠페인
7. 낙동강 살리기 운동
8. 금정산 보호운동
9. PC 통신 포교
10. 수화교실 운영
11. 큰스님 초청 대법회 개최
12. 회원 취업 알선

불교청년회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사찰 또는 부산지구 사무국(☎ 853-9082, 867-4769)으로 연락바랍니다.

대한불교청년회가 다가온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후예,

불기 2540년
2월 4일 (일) 오후 3시
KBS 부산홀

1부 축하공연
2부 석용산스님 법문

■주최 :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문의 : (051) 853-9082
■후원 :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부산불교신도회, 부산불교실업인회, 불교텔레비전, 불교부산방송, 불교교육회관 공덕원, 대한불교신문, 불교신문, 법보신문, 주간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무료입장



62

고은 불교대하소설

"즐거움이 가득한 천상계라 하더라도
다른 세계와 다르지 않다
모든 즐거움 뒤는 반드시 고통이니라"



합두가 태어난 곳

불이는 하나의 별로 빛나면서 합두의 별과 전혀 별개의 것이 되었다. 아니 합두는 불이와 하나가 된 불덩어리 기둥에서 떨어져 나간 뒤 그의 별은 더 높은 하늘 속으로 마치 팔의 힘이 센 총각이 던진 돌팔매처럼 내던져져서 인간계가 아닌 천상계로 들어간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가 마음을 가다듬은 뒤 헤어진 합두의 행방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으나 끝내 알 길이 없었다.

하늘 속의 별들은 별과 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몇천만유순이나 되었다. 그래서 이웃이란 서로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빛과 빛 사이의 추상적인 우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떤 시인이공후(箜篌-하프)의 줄을 퉁기며 노래하기를 "어찌 지상(地上)의 우정만 자랑하랴. 저 높디높은 허공 속의 별과 별 사이로 그 몇백광년(光年)의 거리를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소근거리는 그 우주의 우정을 잊을 수 없나니"라고 하였다.

합두는 그런 별이 되어 천상계에 속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불이가 저 중국 오지의 누란에 남아있는 그 폐허 흙덩어리 위 불탑을 내려다보는 일도 합두가 간 곳을 모르게 된 뒤의 일이었다. 그것은 합두를 체념하기 시작한 불이의 비애와도 같은 새로운 시도였다.

거기에 누란의 불탑이 보였던 것이다. 탑은 왜 그곳에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끝없이 의심할만큼 뜻밖에 그곳에 있는 것이었다. 아주 볼품 없는 고독으로써.

지금은 사막일 뿐이지만 누란이라는 나라가 번영할 때에는 그 일대는 물이 충족한 오아시스의 도시가 세워져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그것도 몇개의 커다란 불교사원과 불탑이 있고 승방을 배치한 구역을 중심으로 삼은 아주 커다란 도시의 자취였다.

그 남쪽으로 중국의 군대가 주둔한 병영의 자취와 농가들이 즐비한 전원의 자취, 수많은 미이라로 된 사체(死體)를 그대로 놓아둔 묘지들이 하나하나 옛 시대의 영화를 재구성해 주고 있었다.

불탑에서는 고대 그리스 양식이 반영된 간다라의 아름다움이 표현되어있고 미이라에 걸쳐진 옷에는 로마의 신 헤르메스의 모양을 짜서 만든 모직물 따위가 너덜너덜 남아있었다.

페르시아의 보석으로 된 목걸이, 로마풍의 청동 램프도 남아있었다.

그렇다면 이 국제적인 도시의 문화가 불이의 별빛으로 비추어질 때까지는 몇천년 동안 지상에서는 오랜 부재(不在) 일 따름이었다.

기원전 77년까지 있던 왕국이 번영을 누리다가 망한 뒤로도 매우 번화한 국제시장으로 4세기 중엽까지 존속되면서 중국에 가깝다는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중국인의 서방진출에 의해서 그 시장의 실권이 확보되거나 아예 중국 둔전병(屯田兵)이 파견되어 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왕국이 망한 1백년 전에 한 왕국이 있었으니 그것이 곧 누란왕국이었다.

바로 그 누란시대의 불탑 하나만이 남아서 지난 세월의 성쇠를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부터 불이는 새삼 이 세상의 덧없는 역사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누란의 사막에 하나의 별이 떨어진 것이다.

그것은 긴 빛의 꼬리가 달린 합두의 별이었는데 그것이 누란의 불탑 부근의 사막에 떨어지자마자 한 덩어리의 돌로 박혔다. 실로 뜨거운 돌이었으므로 모래조차도 태워버릴 정도였으나 그 모래 속에서 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물들만 죽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 돌은 하나의 생명체였으므로 그 수많은 미물들이 죽어가며 외치는 비명들을 다 들어야 하였다.

"앗!"
"아앗!"
"앗!"

합두는 이렇게 수많은 모래 속의 미물들을 죽인 뒤 점점 식어가는 하나의 돌덩어리로부터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거니와 그는 천상계에 들어 가자마자 어떤 천상인이 등을 떠밀지마자 그 길로 이탈계 지상의 사막에 떨어져야 하였다.

"이곳을 천당이라고 여기고 온 중생이야말로 어리석도다. 어서 떠나거라. 나도 곧 떠날터이다."

아마 이런 호령과도 같은 말을 합두의 별은 들었던 것 같다.

합두의 별이 떨어진 며칠 뒤 또하나의 커다란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그 별이 천상계 도솔천 외원에 살고 있던 만화의 별이었던 것이고 합두에게 호령을 했던 천상인도 바로 사바세계 무욕도에서 함께 지냈던 만화였다.

만화는 그동안의 천상락(天上樂)을 실컷 누린 나머지 다시 지상으로 돌아와야 할 처지였던 것이다. 어느덧 그는 9백년의 천상계 시간을 보냈다.

그 지루한 즐거움의 세계,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도 없는 세계이건만 그 세계 조차도 유한(有限)의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천상계의 천인(天人)도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만화는 천상계 도솔 외원의 궁궐 안에서 고 삼자어 5백 무지개가 연주하는 5선율의 소리와 언제나 몽롱한 취기를 가져다 주는 술의 즐거움이 자유자재로 찾아오는 것이었다.

만화는 이러한 천상계의 생활에 마치 전생의 인간계 바다에서 난파선에서 살아났을 때처럼 몸에 흠뻑 젖어있게 된 것이었다.

그 긴 천상락의 시간은 어느덧 그 끝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막을 수 없었다.

만화는 몇번인가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천녀 아사(阿斯)로부터 다음과 같은 예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몇마디의 향기로운 대화를 주고 받는 7보 구름 속의 비밀장소와도 같은 허공에서였다.

"만화천인이시여, 당신이 저에게 베풀어주신 즐거움은 아직까지도 제 몸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가 노는 것처럼 제 몸 속에서 그 즐거움에 열중하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사옵니다."

"아사천녀시여 나의 몸 속에도 당신의 그 눈부신 몸과 정성으로 이루어진 즐거움이 언제나 살아있어서 차라리 다른 즐거움이 필요없을 정도이옵니다."

"아 만화시여. 제 천상의 영광 가운데 어찌 당신이 자리잡지 않겠사옵니까? 저에게는 당신이 베풀어주는 그 지극한 즐거움 때문에 이토록 아름다움을 이어갈 수 있사옵니다."

"아사시여! 아사시여! 나의 아사시여! 다음 생(生)에서도 다시 만나 우리의 천상락을 길이길이 이어가사이다."

그때였다. 이제까지 온몸에 땀이 돋아나고 있던 젖은 아사의 몸이 분득 슬픔으로 덮이면서 고개를 흔드는 것이었다.

"아니옵니다, 만화천인이시여. 당신은 다른 인연이 시작되고 있사옵니다. 이미 저는 지난 날의 일이 되고 말 이 천상이야말로 저에게는 즐거움이란 얼마든지 슬픔으로 바뀔 수 있음을 깨달았사옵니다."

그날 아후 하늘의 시간으로 며칠이 지났다. 이제까지 몇백년을 살아오는 동안 단 한번도 아픈 적이 없던 만화에게 갑자기 그의 천상 날개죽지가 아프기 시작하였다.

그 아픔은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것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하여 몹시 아픈 것으로 되었다.

"천상! 이 천상세계가 이렇게 아픈 곳이란 말인가."

그런데 그 아픔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아주 극한적인 고통으로 발전하는 것이었다.

"앗!"
"앗!"

만화는 방금 무지막지한 고문 하수인으로부터 아주 야만적인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때문에 소리를 질러야 하였다.

그때였다. 허공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조차 하나의 고문처럼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이곳은 그대가 누린 것처럼 즐거움으로 가득한 천상이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의 천상에서 물러갈 때에는 이제까지의 즐거움에 대한 어떤 마무리를 위해서도 마땅히 천상이 아닌 곳의 고통을 겪어야 물러갈 수 있다."

"..."

합두 별은 사막에 떨어져 돌이 됐다… 9백년 천상락을 누린 만화도…

말하자면 온갖 7보(七寶)와 아름다움이 지극한 장식으로 된 장엄하고 다채로운 궁전으로 된 곳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허공 속의 그것이기 때문에 그 도솔천 내원이나 외원의 세계 자체가 날라다니는 낙원인 것이다.

그런 낙원의 여기저기를 마음껏 날아 다니며 하늘의 음악과 하늘의 맛있는 음식뿐 아니라 온갖 아름다움과 쾌락으로 넘치는 천녀(天女)와의 사랑까지도 얼마든지 누리는 것이었다.

또한 천상계는 향기로 가득찬 미풍이 불 날마다 즐거움 가운데 있었지만 반드시 그곳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본디 천상계는 일종의 허공삼태이기도 하므로 천인은 언제나 날아다니게 되어 있다.

"이 즐거움과 행복이 나의 것이란 말인가?"

"이 즐거움과 행복이 한바탕 꿈이 아니란 말인가?"

이같은 생각이 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 따위야말로 얼마나 하잘것 없는 것인가를 확인시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즐거움이 와서 싹 쓸어 가버리는 것이었다.

"끌겁도다!"

이 말의 되풀이조차 필요없었다. 어떤 기쁨의 절정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도 감탄사도 필요없는 그런 궁극의 즐거움 가운데서 차라리 만화는 그런 즐거움 하나하나가 언제나 새로운 도취였다.

그렇게 해서 천상계 9백년의 세월이 다 간 것이다. 굳이 그 시간을 사바세계 인간계의 시간의 척도에 맞출 것은 아니거니와 터 다음과 같은 예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몇마디의 향기로운 대화를 주고 받는 7보 구름 속의 비밀장소와도 같은 허공에서였다.

"만화천인이시여, 당신이 저에게 베풀어주신 즐거움은 아직까지도 제 몸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가 노는 것처럼 제 몸 속에서 그 즐거움에 열중하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사옵니다."

"아사천녀시여 나의 몸 속에도 당신의 그 눈부신 몸과 정성으로 이루어진 즐거움이 언제나 살아있어서 차라리 다른 즐거움이 필요없을 정도이옵니다."

"아 만화시여. 제 천상의 영광 가운데 어찌 당신이 자리잡지 않겠사옵니까? 저에게는 당신이 베풀어주는 그 지극한 즐거움 때문에 이토록 아름다움을 이어갈 수 있사옵니다."

"아사시여! 아사시여! 나의 아사시여! 다음 생(生)에서도 다시 만나 우리의 천상락을 길이길이 이어가사이다."

"아마 그대는 알 것이다. 이 천상계의 저 아래에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

"그 지옥이라 해도 천상계를 물러갈 때의 고통 16분의 1에 미치지 않는다면 이곳을 물러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짐작하리라."

"앗"

"함부로 소리치지 말아라. 아무리 천상계라 하더라도 이곳은 다른 다섯세계와 똑같이 괴로움의 세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그대는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모든 즐거움 뒤는 반드시 이런 고통이 있느니라."

그림 · 조향숙

난치병 · 불치병 휘어잡는 책
「김윤세의 신토불이 건강」
인산의학의 모든것, 각 질병별 처방 정리
漢陽院 736-3171

선관단식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수련장 사진서 동원면 화동산 장심선원 안내 ☎ (0359)34-1115-6

척추교정 · 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 목 · 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 · 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장심수 건강연구원 업구장역 543-7306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 · 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유풍B/D (을지로 2가)
전화 (02)266-2629, 404-9521
팩스 (02)266-2679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60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지회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제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 · 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시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주조소 聖鐘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 (02)733-6141(서울사무소)
☎ (0331)283-2083(공장)

찾 · 습 · 니 · 다
전통불화 배우실 분
전통불교미술의 맥을 이어 기도 · 정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대 佛畵의 새 영역을 개척하고자 불광미술원의 새 가족을 찾습니다.
■ 성별 : 남
■ 연령 : 만 18세~25세(군필 또는 면제자)
■ 학력 : 제한 없음
■ 기타 : 신심 돈독한 불자
■ 문의 : (02) 477-9178
불광불교미술원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출판 윤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허공에 서려 묻혀진 세월
●칠은 날의 외로움이 이 작은 책에 사리사리 서려져 저 허공에 메아리처 울려 퍼지리라●
스님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한 일본유사에서 한 칠은이의 외우고려 상하기 여기 담겨져 있다
지금 이는 누가 이 칠은이만큼의 넓은 눈과 넓은 마음을 가졌을까?
당신이 칠은이시면, 이 책은 당신이 무슨 보다른 당신을 애기한 것이다
조 만출 판사 ☎ 03) 3673-0824 • 교보 · 영풍문고에 있습니다. 정가 5,000원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법원(의정부) 대웅전 · 법당 · 불상
• 직할시(대전시) 대웅전 수미단 불상 문짝
• 서울(백운사) 법당 수미단 등각 목조탑
• 중앙(성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정사) 대웅전 법주문 문짝
• 성남(법륜사) 대웅전 문짝 일체
• 충무(삼막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일체
• 마천(천은사) 대웅전 수미단 중적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일체
• 군포(흥법사) 대웅전수미단법상일체
• 서울(학림사) 화운 종적, 그외 다수 시행
대전(전승)공예사
현도종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금 강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貞玉 합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 · 8월 검정고시 국졸 · 중졸 · 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 · 재수생 · 직장인 · 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 쉽게 풀이된 해설 「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대학 졸업과정 | ⊙ 철저한 1 : 1 「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 · 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 · 高 · 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6년전원졸업목표 → (영 · 수) 「비디오강의교사」 특별제공
참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 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6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자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써 주셔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무척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 최경달(남, 27세) 드림 –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주110-410 서울 종로구 안국동 해운빌딩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씨비스 080-023-4600

초롱초롱하고 큰 눈망울, 금방이라도 재잘거리며 웃음꽃을 터트릴 것 같은 미소…. 신흥사·심원사·구룡사학생회 등의 청신사 청신녀들. 빠르고 경쾌한 리듬에 익숙한 신세대 청소년 불자들이 〈반야심경〉 〈천수경〉등의 독송집을 지니고 구룡사 법당을 가득 메웠다.

불교텔레비전이 '21세기 청년불자여 여명을'이란 주제로 지난 20~21일 1박 2일간에 걸쳐 구룡사에서 전국의 청소년 불자1백여명을 대상으로 제1회 불경독경대회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전 음성공양을 올리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들은 하나가 되어 참선과 법담을 나누며 우정과 추억만들기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했다.

지장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철원 심원사학생회 임석현군은 "처음에는 타 지역에서 온 법우들과 다소 어색했으나 심원사의 유래, 법회활동, 학교에 대한 자랑을 하다보니 금방 친숙하게 됐습니다"라며 환하게 웃는다.



◇ 1박2일간 구룡사에서 열린 청소년 독경대회

btn '제1회 청소년 불경독송' 경연대회

"독경으로 다지는 불심과 우정"

부처님전 불경독송 진지한 자세
"신세대도 염불공양 생활화 했으면"
최우수상 신흥사·우수상 대각사

21일 오후 1시, 청소년들의 가슴은 점점 고동쳐오기 시작한다. 이번 법회의 하일라이트인 독경대회가 임박했기 때문. 광동여고의 '우리말 반야심경독경'으로 시작된 독경대회는 각 팀의 독경이 이어지면서 진지함은 더해갔고, 법당 가득 메운 청소년들의 열기는 한겨울의 동장군을 무색케 했다.

특히 고사리 같은 손으로 커다란 목탁을 힘껏 움켜잡고 또박또박 읊조리는 염불소리는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부처님 도량을 찾은 신도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청아한 독경소리에 매료되어 동참하게 됐다는 보명화 보살은 "스님들의 염불처럼 완숙하지는 않지만 자신감에 넘쳐 목청껏 염불하는 모습이 깜찍하고 인상적이었다"며 각 팀의 독경대회가 끝날때까지 격려의 박수를 힘차게 보내며 즐거워했다.

독경대회 도중 목탁집전이 너무 빨라 당황하는 일, 게송을 잊어 버리는 일 등도 속출하지만 경청하는 법우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본선 10팀이 열띤 경합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 경기 신흥사가 최우상을, 경기 대각사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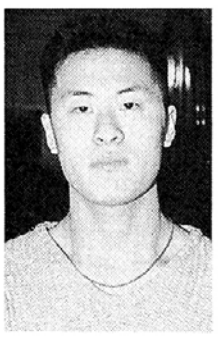
우리말 천수경 독경으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거머쥔 신흥사학생회 불자들은 "뜻밖의 결과를 얻게 돼어 매우 기쁘다"며 "그동안 정성껏 지도해 주신 주지스님과 부처님에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입을 모았다.

산회가를 마지막으로 이번 독경대회를 회향하고 각자 고향사찰로 향하는 청소년 불자들의 당당한 발걸음은 내일의 밝은 불교를 보는듯 했다.

김중근 기자

새싹불자를 키우자
현대불교 연중 캠페인

우리절 X세대 스타



구룡사 학생회장 진동욱군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가장 먼저 부처님 품을 찾아 법회준비를 하고 있는 진동욱군(상문고 2)은 구룡사학생회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옹골찬 신세대 스타 불자이다.

친구의 권유로 법회에 참석, 주지스님의 설법을 듣고 본격적으로 삼보에 귀의하게 됐다고 말하는 진군은 "학교내 대부분의 친구들이 불교가 어렵고 어머님들만이 가는 곳으로 잘못 알고 있어 안타깝다"며 "법회에서 배운 재미있는 부처님 이야기를 통해 같은 반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법회에 동참시키고 있다"고 자신의 포교전략을 말한다.

"친구들 포교 노하우 있어요"

이처럼 진군의 포교는 특별하지 않다. 그의 생활이 포교이고 구룡스타가 된 원인중의 하나다. 특히 구룡사학생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진군은 사찰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야구 농구등에 월등한 실력을 발휘, 만능 스포츠맨으로도 통하고 있다고. 〈중〉

법회탐방
명락사 학생회법회

"지금부터 불기 2540년 1월 21일 학생회 정기법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총무 이성호군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천태종 명락사(주지 도정) 학생회법회가 여학생 20여명, 남학생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삼귀의례와 찬불가에 이어 반야심경 독경, 상월원각 대조사 법어봉독이 차분하게 이어졌고, 학생회장 오종환군(대진전자공고 2년)이 개회사를 통해 무게있게 입을 열었다.

"법우님들의 도움으로 법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학이라고 게을러지지 말고 열심히 수행합시다."

학생회장의 목소리에 위엄이 실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고2 이상의 학생이 입시 때문에 거의 나오지 못해 대부분의 학생이 고1 또는 중학생인데다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어 명락사 부전 대어스님이 시종일관 조용하고 엄숙한 가운데 말똥말똥 시선을 모으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설법을 시작했다. 스님의 설법역시 방학이 주제였다. "작심삼일(作心三日) 말고 방학동안에 공부와 수행을 병행하라"는 내용이 주가 되었다. 스님은 가까운 생활속의 예를 들어가면서 재미있게 설법을 이끌어 갔다.

설법이 끝나고 부회장 우지혜양의 발원문 낭독과 공지사항 안내에 이어 관음정진이 시작됐다. 약 30분 동안 진행된 관음정진은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일념삼매(一念三昧)에 들게 하는 훌륭한 수행방편이다. 특히 주위를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어린이들에게는 이 관음정진이 좋은 수련방법이 된다고 한다.



◇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자율법회를 실시하고 있는 명락사 학생법회.

30분 관음정진 "방학을 알차게"
교리공부·사찰 불사돕기 열심

사홍서원과 산회가에 이은 폐회선언을 끝으로 법회를 마치자 지도교사 정재희(24)씨는 "집에서는 말썽쟁이도 있지만 이곳에서는 모두 착한 선재동자가 되어 교리공부와 수행, 사찰불사 참여에 열심"이라고 학생들을 칭찬한다. 그녀는 바쁜 직장일 틈틈이 4년동안 학생회법회를 지도해 온 학생들의 다정한 누나 언니 겸 친구다.

〈김재경 기자〉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성 냄의 장 *
육신을 억제하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억제한다

이 함 원



대중불교

■ 2월에 떠나는 '대중불교 산천기행'

인연에 땅, 원력의 땅을 찾아가는 대중불교의 산천기행이 답사문화의 새로운 장을 마련합니다. 함께 배우고 불심을 키워갈, 마음이 젊은 모든 불자를 환영합니다.

- 가는곳: 내포일대의 불교유적을 찾아서(충남 예산 수덕사, 추사고택, 서산 개심사, 마애삼존불 등)
- 가는날: '96년 2월 3~4일 (토~일) 1박 2일
- 참가비: 55,000원 (40명 선착순 접수)
- 접 수: 대중불교 산천기행 담당자
  전화 (02) 752-7047, 764-1614 / 팩스 (02) 771-6796
  은행지로번호 : 국민은행 098-01-0236-597 김판등 (산천기행)
- 출발시간: 2월 3일 오전 8시.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주차장 (3호선 지하철 압구정역 하차)
- 함께가는 스님: 원혜 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신행이나 불교계 현안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 함께 가는 강사: 김현준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저자. 전 우리문화연구원장. 현장에서 성보에 깃든 의미를 듣고 배웁니다

* 그밖에 궁금하신 점은 대중불교 산천기행 담당자 앞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02) 752-7047, 754-1614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월간 대중불교

■ 대중불교 2월호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 시각디자이너 안상수 교수 · 15
대중불교 시사 · 공명선거 감시활동에 참여합시다 · 12

특집 / 업(業)
경전에서 말씀하신 업 · 34
과학으로 접근해보는 업 · 37
업보를 받는 사회 현상 · 40
악업을 소멸하고 행복을 찾아서 · 43

기획 / 신행혁신, 어떻게 해야하나
신행혁신,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 · 66
잃어버린 수행정신 되찾아야 한다 · 68

칼라화보
원성스님의 동심의 노래 (1) · 53
구산선문 (4) · 성주산문 성주사터 · 54
얼과 문화 · 고달사터 귀부 · 60

수행길의 이런 도반 · 맑고 향기롭게 사는 원중 스님 · 82
포교당 일기 · 겨울밤이 서러워지는 노보살 · 85
한국밖의 한국불교 · 미주의 불교언론이 살아난다 · 88
환생의 나라, 티벳 · 티벳불교의 중추 간덴 · 데풍 · 쎄라 · 91

밀교학의 근원과 최신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밀교학 입문서

밀교, 그 위대한 가르침을 읽는다

B.밧따짜리야 지음
장익 옮김

밀교학 입문서

밀교의 근원, 특히 인도교 탄트라와 불교 탄트라를 비교분석해 놓은 밀교학 입문서이다.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인도고대문화와 결부시켜 상세히 언급하고 특히 인도교와의 상호연관성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해 놓은 원저작 이후 최근까지 30여 년의 연구성에 따른 학계의 다양한 학설을 깨 실어 20세기 이후 밀교학 연구의 진척과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인도의 일상생활과 풍습 및 관습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문화이며 인간의 정신적 완성과 심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인 밀교,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과 인도의 고대문화, 그 정신세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신국판/ 284면/ 값 6,000원

최신간 中論頌研究 ●김인덕 지음/ 양장/ 376면/ 값 12,000원

불광출판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420-3200, 3300 / 팩시밀리 420-3400

특집 — 겨레의 얼, 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 ㊦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

"세계자랑 경주성보

서명자 명단

성신여대 강성경 정은주 김효정 정그네 장지연 정 원 박수민 김나연 이주은 김선영 이미영 곽영자 배은주 조진현 성유진 윤진영 김정희 주지정 홍성례 김미란 백소영 전은미 임은주 하미라 김윤자 김 희 서영경 윤소정 임경아 김주애 나은미 이은진 김영재 육일순 최은주 한동원 김수미 이선이 마 원 박수연 민희선 류은기 심은지 홍수영 박미경 권혜영 신하영 조서희 최미영 박현아 이주영 민지영 이지현 정재원 윤성아 차미진 윤경희 안희진 권일연 서희정 이은정 장애미 주방실 김지혜 권혜진 장경혜 우민주 우수정 범선경 조영분 이유정 배민수 박성은 이상민 유선미 오미선 이은화 김성원 박경자 노혜영 양지영 김지선 장수정 김영주 한진선 장혜련 선현주 김미영 박예선 천희자 명한나 이현미 노재홍 장채희 염연희 안세현 손수생 정춘화 김선의 이은희 박진하 이범룡 김주영 김동호 양 원 동관호 이상윤 고태호 박두병 이주성 손대홍 구현범 이태훈 김두윤 김경태 주영애 이종수 남재희 박성은 김경선 인강식 정치영 김성욱 한상문 최경훈 박연숙 이성례 최영윤 성윤석 김기은 갑태훈 양희동 한상준 김동우 이순희 이해금 변난영 안희영 조영진 유선옥 최성임 방경미 김희숙 남두현 조완희 홍윤민 이영지 정태현 이금주 조은경 이지연 황성희 최미란 최지용 이정민 황수현 방현숙 임성연 박진희 이지현 이유라 김종숙 박민정 윤지선 김서희 김선정 남지민 고은지 신혜진 김수진 이경은 김주영 윤수현 박지영 김창미 최예지 함주연 홍지연 홍지민 조혜덕 허상희 한은지 이지현 최현정 정혜화 황인정 이혜림 현윤아 차가은 전현정 임희정 전윤지 이지은 황지영 이승연 조유경 손수희 오연희 김영미 윤주영 이지영 김지영 박미진 최예나 차지영 고재선 김상신 김세라 박은하 변수선 이수린 이숙영 이정효 임보미 정주아 조순신 김은정 선종순 임혜영 신윤남 조동영 박연선 송은정 이의강 이언욱 안 정 서정문 강대열 김성애 김지란 권민자 이숙영 서인숙 강석란 전미영 최수경 임희대 김동가 이호석 이승철 강미경 서경섭 권미정 장영희 성상훈 이여용 배광석 임태업 조승일 원대법 황학선 박종복 이상현 이규재 강승희 이주이 신선영 여수진 김선민 전혜진 정선영 김영실 이기원 강인위 최명진 김경숙 송정아 최 준 박현정 김지영 유미숙 이근희 박성영 김지원 김영숙 이성은 김옥현 이현정 최연선 최선주 서지영 박은서 오제철 박성순 김옥자 정문정 안승혜 장연희 박신영 박미리 김선금 김수희 김현숙 신봉희 김혜련 정병진 정성진 정상순 정용례 이경희 정의홍 임향자 유종덕 오선환 정준남 이향숙 이종목 이장묵 김은남 이정화 정기철 김은자 노동용 노승희 노정기 이혜숙 이영미 김종선 한정원 한영숙 심미진 정주순 용동해 이성희 김경호 고진수 양영식 이중기 방창호 김안옥 이현완 한장옥 유종심 오만석 이상빈 이주영 최진우 황영창 임문알 장기배 지동배 한승렬 최수열 마해영 김대희 김현수 김홍철 신경철 유경렬 이인철 정우현 채 륜 박상호 최낙준 추 식 민서익 천정환 강성현 김민균 김병기 김원일 김희정 신태연 이광표 이호현 이호열 이호정 문복순 김승만 곽정일 김신영 김정연 유춘근 지효순 유해성 이정민 김현자 강경연 장주영 김주영 선혜경 현미란 박성은 김경선 인강식 정치영 김성욱 한상문 최경훈 박연숙 이성례 최영윤 성윤석 김기은 갑태훈 양희동 한상준 김동우 이순희 이해금 변난영 안희영 조영진 유선옥 최성임 방경미 김희숙 남두현 조완희 홍윤민 이영지 정태현 이금주 조은경 이지연 황성희 최미란 최지용 이정민 황수현 방현숙 임성연 박진희 이지현 이유라 김종숙 박민정 윤지선 임혜옥 김주영 이지영 김지영 박미진 최예나 차지영 고재선 김상신 김세라 박은하 변수선 이수린 이숙영 이정효 임보미 정주아 조순신 김은정 선종순 임혜영 신윤남 박예숙 박보혁 박보혁 김명진 정준섭 송주현 박준석 서봉환 김순애 유경준 염화섭 염정순 염기남 염기화 염혜원 이덕순 정진현 신명옥 염옥정 김영구 최창용 이덕순 정진현 신명옥 염옥정 김영구 최창용 이덕순 정진현 신명옥 염옥정 김영구 최창용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

특집 — 겨레의 얼, 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

후손에게 고이고이"

유화자 김대현 이하백 김영희 공부업 장석진 공정수 이석재 최지연 이지민 박순에 이삼순 이경민 조우식 오연자 주우리 김대봉 지천길 심미숙 지천수 박현정 지원우 지민구 지민석 조수만 최현석 최동환 최병직 한종훈 홍성민 한준태 강승준 박선주 김순옥 박관오 여기면 박향근 탁형태 김근호 박진향 강길원 권대선 권혁신 장인수 홍산원 정동호 오경희 박광수 정호봉 정아봉 신재남 심명섭 아구희 이석민 이석민 이성유 이용진 김찬조 권용환 오선희 권상환 권영욱 이정호 이종원 이경원 이승은 이초은 이효재 이원재 전장풍 정원규 조경일 정명숙 정현순 정현섭 이계순 이용관 박기자 우귀영 김진영 우현석 우현관 우현근 엄오덕 이태용 김경덕 노분희 김지혜 김동헌 김용일 박광희 김항순 김정례 이상조 김민순 이영옥 이선화 이은정 이동규 안진만 이경주 이동훈 이용우 이정화 이지훈 이택준 이향우 정장규 정호섭 정봉원 조상호 조정현 최은혁 최재경 천재주 한승표 홍현준 고하주 성상현 서덕준 사공종현 우병국 김윤석 고강녀 김대륜 김만준 난하진 박정미 방창석 김무현 김범용 김승용 박동성 김대진 김영순 한석유 주성배 백진영 서정은 신은정 서유기 장선화 이육녀 이대근 오상훈 윤미희 이정석 이정엽 이진영 장호승 안병선 안병순 이준조 안준자 이성근 이명근 주강호 김경문 김경은 김대호 김민식 김세훈 박옥순 임정기 양재일 서효석 안성우 양성희 김재훈 김인수 김재범 김학준 김현준 박장배 박상현 박용규 박승호 박종필 박주학 이학준 김기철 이옥진 이성덕 김성수 김재훈 김인수 김조현 김종은 김주용 김지훈 김치수 엄오덕 안대용 박노찬 이인석 서순례 이정순 이민들 김희철 박근수 신광수 김세현 박수영 박주섭 이상선 이성열 이상진 김덕영 정낙순 이종수 이찬규 이재준 이상욱 이기자 김문기 마영해 허인식 전정남 마영규 서창원 김성욱 홍남석 이기자 홍문수 홍진수 김성욱 천은순 김미경 서창원 마영규 박현순 마정인 전진남 신문선 전종기 전종모 전순성 허인식 조명옥 배차래 허인숙 허인숙 허명구 허인교 마영해 김경례 마은하 마은애 김문기 임옥진 김용세 임선자 김경현 김용성 전대현 장준식 서택주 김기경 이영준 이명숙 김경희 김용성 김병목 박계원 홍문종 반영목 최차장 남하진 김연순 이옥녀 김광경 신영복 김문경 정임기 백창기 박재원 곽병찬 오진식 이창수 최인범 방현숙 김용태 김홍진 최재우 박화성 박화자 최종석 나정심 최우순 송석근 조창희 함수하 조준열 조준신 김은주 김경태 이태자 김기대 김영업 홍보관 소효범 이단오 송우영 송우경 전병운 조춘자 전성연 전강이 유노직 최상준 박영배 신오석 김갑수 이유호 마영국 조기상 한은우 김대봉 임순택 이석분 정수화 마영준 김영문 문만희 최승규 정성원 정기준 이종말 진남성 최현숙 임상진 김용주 한 광 마영숙 박혜운 이두형 임노식 박귀모 김화백 윤용호 신광호 신창기 이은길 박광효 이계순 김성희 이인식 김덕영 박광희 김덕근 김상수 김석원 김경희 김상수 김대림 김순녀 이인학 김원식 김계순 정인숙 김덕림 김상일

특집 — 겨레의 얼, 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 ㉮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

도시발전 미명아래

천태종 전주지회

천태종 대성사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

특집 — 겨레의 얼 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끝)

경주시민 현혹말라

김성준 김대현 김칠호 류재국 박순홍 김상철 최호영
박승영 박인홍 안동균 이병홍 신남우 이연정 김상식
이관희 이광식 임성택 이유희 임종락 이옥말 남현종
박상문 안봉길 신중근 우인철 경영란 장재도 김용수
김덕곤 이상태 김병무 송원길 여인수 박동석 서경수
김도엽 김기열 김일웅 장성희 박광천 김영수 천명권 최원철
윤준자 윤기섭 김원희 배종숙 조현완 장명옥 조정천
이복연 정만식 천영배 염난자 천승철 김정헌 김문호
임도완 이상섭 이화섭 김종식 이기희 한지희 권태섭
김경환 최지경 오은실 김은숙 김금희 이영희 김성희
김영희 홍태성 이미숙 황미란 변임순 이상대 장연태
김완영 이은희 김도은 백유환 백태수 오세강 이재범
정종남 이복남 장한수 장인수 김성출 김추란 김남선
호성열 최종란 감문호 이경숙 최준지 김민경 김정희
호성준 최진욱 허남인 박정용 김혜경 박지성 박민정
이 상순 이진희 이강희 이차련 김기환 김시호 허창렬
정금희 허소연 허팔여 허문강 이병희 조종희 한원식
원필여 장경욱 김진숙 오세정 김민경 김용남 천승기
김차식 김화자 유춘선 김영희 한길국 위정희 한미애
이정남 이철호 정정새 고수민 최병일 김문이 이기란
길금순 최병열 최병조 박귀복 박영순 신교태 김정숙
최재욱 박인남 정종숙 김순주 박도희 김민석 김민식
유용관 이옥이 유영미 유정철 임정일 이종찬 이미숙
이승진 우종원 이정숙 우옥분 이경수 김금옥 김옥순
유이열 손행자 유은실 유설기 홍기정 김원자 홍은석
홍문석 송양준 정경화 송호근 송혜정 송용권 이종표
이명희 이일우 이선우 김옥분 배연일 손영주 문병현
박완일 박두홍 박귀남 이춘상 박종연 김분덕 박성순
박영순 류선희 박영자 류길호 김분덕 박성순
김소희 김진환 김진호 이태우 이성우 장병훈 강화숙
설종원 최경희 박병천 김은섭 박창호 박동호 이정남
심연정 이현진 이윤선 이문선 임시열 박해숙 최광석
홍성애 최이혁 이지자 최종민 박영진 박준형 권금자
최종현 최석수 이정자 최종민 박영진 박준형 김영은
이관길 윤경자 문옥이 김지태 이봉자 김나영 김주영
김재혁 김은식 최영자 김학진 김학현 김일주 강인계
조현환 장병숙 조정현 조윤미 김종화 김신희 김민조
이혜경 김혜진 김민조 박창호 박동혁 김미애 김미네
김민수 염순섭 박창호 박동호 이정남 김은숙
오명희 권혁미 유병철 김미리 이석환 정성호 송다운
이해숙 유순자 박명일 최육태 변철용 이상언 신남선
김진철 한상빈 강희태 이태호 조병열 최두승 행서원
송재경 김남철 유순오 우창명 황소현 김진만 신덕수
박한용 김성애 류재관 박길제 강경미 허남은 송정숙
이혜영 김해진 김미애 김성미 조미란 조선영 김혜경
백남기 이명옥 김진수 구정옥 김정문 신상진
송한희

"불교의식 청소년교화 효과 크다"

美 LA 시민·불자대상 '만다라 제작 교육' 실시 결과

불교의식이 청소년 교화에 큰 보탬이 된다는 실례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증명됐다. 인도 규토사원에서 온 티벳승려가 LA시민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모래를 사용한 만다라 제작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교육은 작년 8월부터 '인성개발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티벳승에 의해 진행된 교육으로 '폭력적 성향 치료'라고 일컬어지는 '만다라 제작 교육'이다.

또한 이 교육은 로스앤젤레스 시의원 마이크헐한즈와 불교재단인 사마야 재단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교육담당자들은 교육을 홍보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의 시민들을 직접 방문하는 한편 시 근교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참여를 적극 권장했다. 현재 폭력조직 보스까지 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LA 근교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참여해 호응도를 실감케 한다.

결국 교육성과는 놀라운 통계수치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두 폭력조직, '사이프러스 팍' '몬테키토 하이츠' 간의 충돌로 14명의 청소년이 사망했으나, 올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한 건의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

교육담당자인 한 스님에 따르면 "만다라 제작 교육이 피교육자들인 청소년들을 비롯 시민들의 심성을 정화시켜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시의원인 아토니 길씨는 사마야 재단에 편지를 보내 "교육이 진행된 지난 9개월 동안 로스앤젤레스의 두 폭력단 사이에 단 한 건의 충돌도 없었다. 로스앤젤레스 주민은 이 놀라운 결과에 주목한다"고 말하며 큰 관심을 표명했다.

오증욱 기자

부산 BBS 개국 1년
류 진 수 사장



"지방화시대 맞는 방송문화 조성"

"부산 경남 지역은 문화의 불모지라는 달갑지 않은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불교부산방송이 지난 1년 동안 지역문화 창달에 한껏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월1일로 개국 1주년을 맞는 불교부산방송 류진수 사장은 불교방송이 지역정서에 부응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류사장은 89.9mhz 불교부산방송이 명실상부한 불법홍포의 구심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방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병근 기자〉

지구촌 불교

달라이라마 평화·자비가르침 신간 4권 인터넷 웹페이지에

달라이라마의 신간 4권이 출판됨과 동시에 인터넷에 등장, 이용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티벳불교의 세계:철학과 실천에 관하여(The world of Tibetan Buddhism)〉〈자비의 힘(The power of compassion)〉〈정신을 깨우치고 마음을 밝게 하는(Awakening the mind Lightening the heart)〉〈깨우침으로 가는 길(The path to enlightenment)〉등이 그것.

티벳문화와 티벳불교 달라이라마에 관한 자료들을 출판함으로 티벳문화 보존에 노력하고 있는 스노우라이온(snowlion)출판사에서 발간한 이번 신간은 모두 티벳불교의 전통속에서 평화와 자비를 실천하려는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에 관한 것으로 책으로 출간됨과 동시에 스노우라이온 인터넷 웹페이지에 소개됐다.

특히 티벳불교의 기본교리와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티벳불교의 세계'에 관해서는 달라이라마와 절친한 관계로 알려진 리차드기어가 "사랑과 자비의 실천, 우주적인 책임감을 강조함으로 티벳불교를 꿰뚫는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에 관한 책"이라는 서평을 덧붙였다.



티벳 6세 판첸라마 중국방문

중국 정부에 의해 티벳 라마교의 제11대 판첸 라마로 공식 인정된 기아인카인 노르부(6세)가 12일 중난하이로 중국 장쩌민 주석(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을 방문했다.

한편 티벳의 독립운동을 세계에 호소해 온 달라이라마는 장쩌민이 판첸라마의 방문을 받은 것과 관련 "티벳독립을 억압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아울러 지난 15일 존 에드워 포터(John Edward Porter, 미국)를 비롯 25명의 미국의회 의원들이 장쩌민 주석에게 11대 판첸라마와 관련해 편지를 보냈다.

의원들은 편지를 통해 중국이 독자적으로 판첸라마 승인 이후 작년 5월 달라이 라마가 직접 승인한 판첸라마, 게드뭄(Gedhum), 그의 부모, 체트러(Chatrel) 린포체 등이 행방불명된 사실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판첸라마 승인 문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티벳의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日사찰 종교법인법 찬·반 '팽팽'

지난해 12월8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된 일본의 종교법인법 개정안에 대해 일본 사찰의 50.9%가 찬성입장을 보여 찬반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밝혀졌다.

종교법인법 개정안에 대한 이같은 결과는 일본의 불교타임즈신문이 전국의 5백여 사찰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43.8%에 이른다.

설문조사는 종교법인법 개정안의 주요골자인 관할청의 문부성이관, 재산목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 활동보고서 분부성에 제출, 수익사업에 대한 질문권확대 항목 등에 관한 것이다.

관할청의 문부성이관항목은 69.3%의 사찰에서 찬성한 반면에 정보공개 활동보고 질문권확대항목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각각 56.1% 53.5% 50.9%로 찬성의견을 상회했다. 특히 정보공개항목은 종교법인이 임원명부 재산목록 임차대조표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해야하는 내용으로 개정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불자 축구스타 바조 3월 방한

체류중 월주 총무원장 면담
불교세계화기여 공로 감사패
2002년 월드컵 한국유치 홍보

세계적인 불자 축구스타 로베르트 바조(이탈리아)가 한국에 온다. 오는 3월 20일부터 5일간 대웅제약의 CF촬영을 위해 내한하는 바조가 한국불교계와 인연을 맺게 된다. 2002년 월드컵 유치 홍보위원이자 불자 가수인 김흥국씨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바조선수가 국내 체류기간 중 한국불교계와 접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고 밝히고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의 면담, 불교계에서 감사의 표시로 수여하는 국제포교사상 수상, 해인사 승려축구팀 방문 등 일정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바조선수 초청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오는 2월 2일 종단협 이사회에서 확정된다.

이번 불교계의 바조선수 초청은 2002년 월드컵 유치 홍보측면 뿐 아니라 그가 불자인만큼 한국불교의 세계화의 한 측면으로서 포교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포교대상 상금전액 불교TV 주식공모

신흥사주지 성일스님

불교TV 제3차 불자주식 공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성도일에 경기도 화성 신흥사 주지 성일스님이 지난해 조계종 포교원에서 실시한 포교대상 원력상 상금 전액을 불교TV 주식공모에 사용할 것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성도절 봉축대법회 광주사암련, 22일

광주사암연합회(회장 영조)는 지난 22일 광주시민회관에서 성도절 봉축대법회를 봉행했다.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대법회에서 영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랜기간의 숙면에서 깨어나 민중의 아픔을 함께 하는 광주·전남지역 발전의 선봉이 되는 불교를 만들자"고 말했다.

광주사암련은 중·고등학교 불자청소년 10명에게 2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천태종 상월대조사 탄신법요 3만명 동참

천태종은 지난 18일 총본산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상월원각대조사 84회 탄신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스님 3백여명과 문체부 이경문차관 이한동 국회부의장, 신경식 문공위원장, 송광호의원 김호일의원 하순봉의원 차화준의원, 유승규의원 전 경제부총리 홍재형, 전 총무처장관 김용갑, 우폰민 미얀마대사, 우루쥔 빈떼부 몽골대사, 김광홍 충북부지사 등 3만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고선사지 '옛 모습'

경주 덕동댐 건설로 수몰됐던 고선사지가 극심한 가뭄으로 옛 모습을 드러냈다. 돌축대와 깨어진 기와가 보인다. 고선사지는 신라 원효스님이 금강삼매경론을 집필하던 사찰이었다.

〈경주=김원우 기자〉

목탁소리

태고종 달라져야 한다

김 원 우
〈취재1부 기자〉

지난해부터 개혁을 추진해 오던 태고종이 만 1년도 안돼 삐걱거리고 있다.

종단의 제도적 틀을 갖추고 인사개혁을 단행키로 한 71차 종회결의가 최근 종정유시로 백지화된 이후 개혁은 차치하고 내홍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태도 종단 중요직책을 맡고있는 일부 지도부스님들이 같은 명분과 뜻으로 종회를 통해 개혁에 착수했음에도 명예와 주도권을 내세운 시각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고종은 사실상 창종이후 20년간 3부기관 등 종단 중요요직을 이들 스님들이 맡아 왔다.

태고종 실세로 통하는 이들 스님들은 조-태분규의 와중에서 "태고 보우국사의 종지를 살려보자"는 도원결의를 통해 74년 당시 애종심으로 굳게 규합했다. 이들 스님들은 분종이후 이남채 총무원장 재임시 전격 기용됐고 40대에 부장을 맡았다. 이른바 조-태분규로 와해되다시피 한 종단을 일으켜 세워 성북동에 총무원 청사를 건립하는 등 오늘의 태고종 위상을 지탱해 온 주역들이다.

그러나 조-태분규가 미무리되고 종단이 안정에 들어서면서 이들 스님들간에 서로 견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심지어는 종단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대교체를 통한 인사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도 나왔다.

그것은 공로는 공로대로 인정하고 시대의 변화와 흐름속에서 기존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관행과 의식을 고쳐야 한다는 소리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세대교체, 지역안배를 고려한 인사등용을 종도들의 공감대 속에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여년 동안 태고종은 교계내의 제2종단으로서 위상정립을 위한 시기였다면 향후 태고종은 승려교육향상, 대사회적 역할증대, 종단응집력강화 등의 미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할 시기이다.

태고종은 오는 2월초 개최되는 종회를 통해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고 화합을 통한 개혁추진의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금년, 丙子年(병자년)부터 12년간 大運(대운)을 얻고자 하는 佛子는 실제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받을 수 있는!

"신비의 불탑다라니를 스님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사용해 보십시오"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을 사용하여 제작
규격 : 62cm × 160cm

■구입가격 : 불탑다라니의 공덕과 효험적 가치는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것은 일정한 가격이 없으며, 또한 인연따라 구해지는 것이기에 사람마다의 입장에 따라 구입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얼마에 구하셨든 구하는 시점에서 값은 일체 논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얻은 공덕과 효험이 사라집니다.

"조상령을 천도하고 악령을 퇴치하고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주는 불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1996년 丙子年(병자년)은 아들 子(자)자인 쥐띠해로서 태양의 정기인 양기와 땅의 地氣(지기)인 음기를 음, 양의 조화로 맞추어 안으면 大運(대운)을 맞이할 수 있는, 12년의 運(운)에 시발점인 대세지운의 해이기에… 특별한 효험을 나타내는 음, 양의 조화 속에서 더욱 吉(길)한 運(운)의 정기를 生地合(생지합)해야 하는 해이며, 나쁜 액은 물리치고 大吉(대길)한 생기는 생합해서 入財(입재)해야 하는 해이다.

그래서 모든 불자에게 96년 병자년으로부터 시작하여 12년간 액살, 우환, 잿살들이 가내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불보살님의 가피지묘력이 온 집안에 형통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원만히 성취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선 음, 양의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방편이 필요한 것이다.

스님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영험력을 스님들과 불자들을 통하여 경험한 금강경신탑다라니와 이번에 금타 대덕법사가 고증 조성하여 세상에 現化(현화)하게 된 다보불탑다라니가 불보살님의 가피력이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신비의 불경(佛經)탑다라니임을 알게 되어 이를 100% 경면주사만을 사용하여 두 쌍의 불탑다라니를 조성함으로써 여기에서 부처님의 본래의 참모습과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우주의 생명인 강력한 氣(기)의 에너지가 방출되도록 하여 인체에 氣(기)를 불어 넣어 부처님의 상주불변하는 신비의 가피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경주 불국사에 세워진 석가탑과 다보탑이 바로 부처님의 상주불변하는 조화의 이치로 세워져 천년 신라의 불교문화를 꽃피웠듯이, 현세에서 우리 불자들이 금강석과 같은 지혜를 뜻하는 금강경신탑다라니와 一佛乘(일불승)을 뜻하는 묘법연화경(법화경) 다보탑다라니를 같이 소장하거나 사용했을 때 이야말로 佛經(불경)탑다라니의 불가사의한 위신력과 더불어 완벽한 음, 양숙성의 이치융화로 병자년으로부터 시작하여 최소한 12년간은 소원하는 바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현세에서 그 복의 과보를 100% 받을 것이다. 즉 두 쌍의 불탑다라니를 스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해보면, 금년부터 각자의 소원들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편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이것은 실로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하고도 신비스러운 영험력으로 누구나 직접 체험하리라 본다.

한시라도 몸에서 영험력과 가피력이 충만한 불탑다라니를 떼어 놓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온몸에 칭칭 감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라.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리고 누웠을 때는 저절로 깔고 덮어지는 형상이 되므로 이불이나 요속에 잘 펴서 넣고 자면 자신도 모르게 두터운 업장과 액난이 소멸되고 소원하는 바를 바로 이루는 큰 복덕을 얻을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스님이 제시하는 방법대로라면 틀림없이 큰 효험을 볼 것이므로 꼭 사용해보기 바랍니다"

1)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한다.)
2) 사업이 어려워졌다거나 실패한 사람 (귀인이 나타나 큰 도움을 받게 되고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기 시작한다.)
3) 삼재든 사람 (삼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게 된다.)
4) 무엇이든 꼭 이루어져야만 할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도와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루어진다.)
5) 정신질환자는 완치된다.
6) 대학입시생이나 수험생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생기면서 실력이 급격히 향상되고 시험일에 실수율이 적어 원하는 대학에 거의 다 합격하게 된다.)

※ 상기 사례는 스님이 그동안 금강경신탑다라니(陽)만 가지고 실제로 효험을 본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구입시 자세한 사용방법 및 실증사례집을 보내 드립니다.)

■상기 두 쌍의 불탑다라니는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보는 앞에서 氣(기) 테스트 결과, 그 자체에서 각각 엄청난 우주의 기(氣)에너지가 방출됨이 입증되어 놀라운 가운데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용해도 큰 효험이 있으나 같이 사용했을 때는 음, 양의 조화이치인지 더욱 강한 氣가 발산되었습니다. 이 기(氣)가 우리 인체에 큰 영향을 주면서 여기에 불보살님의 위신력이 함께 작용하여 나쁜 운세를 몰아내고 악한 운기를 강하게 해주고 영기를 천도시키고 악령을 퇴치시키는 영험력이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불탑다라니 영험력 = (자체에서 발산되는 강력한 氣에너지) + (불·보살님 위신력·가피력) + (스님들의 기도 법력)

특별보급계획

① 스님들께만 본 불탑다라니에 대한 기(氣)테스트방법, 운기(運氣)의 강·약 체크방법, 영(靈)의 관계 체조방법을 상세히 서술한 책자를 드립니다. 이 방법을 잘 익히셔서 신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 실제 영험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므로 환희심을 가지고, 모두 사용하게 되어 큰 공덕과 복덕을 주시는 셈이 되며, 스님들께는 이것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의 원가선으로 보급코자 합니다.(구입시 신도수대로 불탑다라니 영험력 사례집도 같이 드립니다)
앞으로 본회에서는 바라밀건강연구원 원장님이신 각광스님을 모시고 각 道(도)별로 사찰을 방문하여 스님들께 기(氣)테스트 방법 등을 각광스님이 직접 전수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② 홍보기간 동안 구입을 원하시는 불자님에게는 특별법보시가격으로 드립니다. (4매 이상)

구입문의 및 상담 : 성지관음회
부 설 : 불교바라밀건강연구회
주 소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4-9490, 39-1906 / 야간 (0342) 706-3060

사찰도 물비상 '타는 목마름'

겨울가뭄 3개월째 지하수마저 '고갈 위기'

불자가정부터 발우공양 정신으로 절수를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가뭄으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있는 가운데 사찰에도 가뭄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현재 가뭄피해가 극심한 경남북 동해안 인근 사찰들은 생활용수는 물론 식수마저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찰들은 지하수 고갈과 오염으로 이중고를 겪고있다.

합천 해인사(주지 지관)는 본사를 비롯, 산내암자들이 생활용수 부족으로 세면을 1일1회로 제한하고 식수확보에 주력하고있다. 산내암자인 백련암은 계곡물이 줄어 지하수를 개발했으나 이마져 고갈위기에 놓여있다.

포항 삼보사는 수도물공급이 중단돼 스님이 직접 물통을 가지고 계곡에서 식수를 떠오는 어려움을 겪고있다 .

경주 불국사(주지 설조)도 지난 15일 종무회의를 통해 가뭄피해에 대비해 절수운동을 전개키로 결의하고 전대중이 물절약에 들어갔다. 기획소임을 맡고있는 성천스님은 "대중들이 생활하는 사찰에서부터 절수생활을 하고있다"며 "절을 찾는 불자들에게도 물 아껴쓰기를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겨울가뭄이 급속도로 중부지방에까지 북상하고 있어 물부족으로 인한 사찰의 피해는 전국에 걸쳐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약수터로 유명한 수도권지역 고지대 사찰의 가뭄피해도 심각하다. 서울 관악산 연주암의 경우 과천시청으로부터 매주 월, 금요일 2회에 걸쳐 식수차지원을 받고있다. 이에따라 관악산을 찾는 4~5천여명의 등산객들에게 보시하던 점심공양마저 일시중단한 상태이다. 연주암은 등산객을 상대로 절수운동 표말을 써붙이는 등 '절수' 홍보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오대산 상원사를 비롯한 강원도 산악지대와 부안 내소사를 비롯한 월명암등 서해안 일대의 산내암자들도 이미 식수난을 겪고있어 가뭄이 장기화 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강원도 동해안 전북 부안등48개 시군에 이어 3월말까지 경기도 화성군등 30개 시군지역의 식수난이 예상된다고 밝혀 이에따른 교계차원의 효율적인 물절약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상청도 3~4월까지 가뭄을 해갈할 수 있는 큰비가 안온다고 관측하고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각 사찰의 스님들은 "가뭄극복을 위해 불자가정부터라도 발우공양을 생활화하여 물사용량과 폐수를 줄이는등 더불어사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주지 인사규정 입법예고

조계종 연수교육등 자격 강화

비구(니)계를 수지하지 않았거나 주지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스님은 앞으로 조계종 본말사 주지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직영사찰 특별분담금사찰은 연4회, 교구본사 주요관람료 사찰은 연2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본·말사주지 인사규정'과 '감사국 직무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본·말사주지인사규정에 따르면 교육포교업적이 뛰어나거나 재임중 사찰등급을 2등급이상 상승시킨 스님을 우선 품신하는 품신특례조항(제7조)을 두고 최초로 주지 취임하는 스님은 주지연수교육을 받도록 했다(제9조).

또한 주지 자격에 있어 결격사유를 명시해 충실히 이행토록 했다(제11조). 주지 결격사유로는 △주지연수교육미달자 △재임중 분담금체납자 △호계원에서 징계의 사유로 심리중인자 △국법에 의해 파렴치범으로 처벌받은자 등이다.

총무원은 '감사국직무규정'에서 △직영사찰 특별분담금사찰(년 4회), 교구본사 주요관람료사찰(년 2회)의 감사정례화(제6조) △보상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토지의 실지조사(제14조) 등을 골자로하는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규정은 20일 경과후 종무회의에서 최종 의결, 시행된다.

청교련 '조계종 산하' 거부

예산지원 문서화 요구…'청소년의 해' 사업은 동참

'불교청소년의 해'가 공식 선포됐다. 하지만 가장 활기에 넘쳐 순항의 돛을 높이 달고 쾌속항해를 해야 할 청소년의 포교가 출발부터 순탄하지 못하다.

포교원과 청교련은 지난해 7월부터 청교련을 모태로 하는 전국규모 청소년단체 결성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15일 청교련이 임시총회를 열어 '조계종 산하단체화' 거부를 결의함에 따라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청교련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종단의 지속적 예산지원의 문건화를 조건으로 참여키로 하는 내용을 지난 18일 포교원에 전달했다. 이에대해 포교원은 총무원과의 예산협의 등의 어려움을 들어 문건화 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포교원측은 "청교련의 의지와 관계없이 종단 차원의 '전국규모 청소년단체' 육성사업 추진은 확고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혀 단체 구성의 방향선회는 불가피하게 됐다.

청교련측은 "청소년 포교는 장기적인 지원은 물론 청소년 지도자 육성과 관리가 선행돼야 하며 조직구성만을 서두르는 포교원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청교련은 결과에 관계없이 '불교청소년의 해' 각종 사업 동참은 물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관계자들은 하루빨리 청소년 단체 조직을 결성, 청소년 포교의 해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원만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來 9일 대의원 총회
조계종 전국신도회

(사)조계종 전국신도회(회장 조기현)는 오는 2월 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중앙사무국 및 지방조직 활성화등 현안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결성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신도회가 조직활성화를 모색하는 대의원총회를 열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교청소년의 해' 선포식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스님)은 지난 23일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40년 불교청소년 해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상징 도안부문 박창렬 교사(동대부중)부부와 표어부문 이성구씨(청교련)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 〈사진=고영배 기자〉

청소년봉사단 활동
부산불교신도회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가 주최한 청소년 불교청소년 지원봉사단 활동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천마재활원, 성우원, 정화양로원 등지에서 있었다.

방학중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자비의 실천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3백6명의 학생들이 동참해 거동이 불편한 원생들을 위해 빨래, 청소 등의 활동을 펼쳤다.

조계종 종무전산화
근거리통신망 설치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27일 중앙종무기관 종합전산망 구축 첫단계인 근거리통신망(LAN)설치공사를 마무리하고 2월 1일부터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총무원은 2단계 교구본사 및 주요사찰 업무전산화, 3단계 말사와 일반인 위한 정보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봉선사 능엄학림 인가

조계종 교육원 올 사업 확정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스님)은 22일 교계기자간담회를 갖고 봉선사에 승려전문 교육기관인 능엄학림 설립을 인가하는등 '96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원장 원산스님은 인사말에서 "금년을 교육제도 정립의 해로 정하고 △행자교육원 상설화 △기본교육 기관개편 △학림설립 △재교육 의무화 정착 등을 주요사업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한 "종단의식통일과 전통의식 계승을 위해 어산학교를 개설하고 정보화시대에 대비 전산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능엄학림 설립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교육원회의를 열고 실상사 화엄학림에 이어 봉선사 능엄학림을 인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능엄학림은 월운스님을 학장으로 10인 이내의 학인을 선발, 금년 하안거 결제일에 개학할 것으로 알려졌다.

봉선사 능엄학림준비위원회(위원장 운경스님)는 "능엄경의 종지를 중히 여긴 선대 운허스님의 유지에 따라 능엄학림을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이밖에 장학금, 교육기관지원금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전개하고 지방승가대(강원)의 현황과 역사를 정리, (가칭)강원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국유지도 경내지 인정
금선사, 전통사찰 등록

지난해 전통사찰로 등록된 금선사(주지 법안)가 경내에 있는 국유지도 경내지로 지정받아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됐다.

지난 17일 종로구청이 금선사에 보낸 '전통사찰(금선사) 경내지중 영업행위 금지구역 지정통보'에 따르면 사유지뿐 아니라 국유지도 경내지로 인정, 영업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불교계는 그동안 전통사찰 법당을 중심으로 연결된 사유토지만 경내지로 인정받아 향후 경내지 지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법률서비스 실시

망실재산 환수·세금회계등 자문…수임료 종단서

조계종이 사찰과 산하단체의 법률문제를 도와주는 법률서비스를 실시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22일 세종합동법률사무소(대표 오성환)와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조계종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사찰의 재산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 및 망실재산 환수 △사찰의 대표권 △불사 포교등 생활상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사찰의 세금 회계문제 등의 법률·세무관련 제반문제에 대한 상담과 소송수행으로 종단산하의 사찰과 단체 관계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총무원 관계자는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불교관련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송비로 소모되는 정재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소송비용을 제외한 서비스 수임료는 종단에서 지불한다"고 말했다.

불전함 털이범 2명
마이산 탑사서 검거

사찰 불전함만 골라 범행을 저질러온 사찰 전문털이범 3명중 2명이 지난 24일 마이산 탑사에서 붙잡혔다.

범인들은 봉고차를 이용하여 절단기, 지도를 갖고 다니며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이미 천은사와 백양사 내소사 화엄사가 이들에 의해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탑사 진성스님에 따르면 이들이 오후 4시경 산신각 불전함 열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불전을 훔쳤으며 이들이 갖고 다니던 지도에 대구 동화사 파계사 쌍계사 표시가 되어있어 다른 절에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신규교원 38명 인준
동국학원이사회

동국학원(이사장 녹원)은 지난 23일 제 13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규 교원 38명을 인준했다. 〈관련기사 4면〉

또 정관 변경건에서는 정교수의 임용기간을 정년까지 보장하고 교수업적평가제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동국대학은 지난 19일 제3캠퍼스(일산) 설립인가를 교육부로부터 승인 받았다.

포교사 양성·재적사찰 갖기 전개
조계종 포교원

전국청소년단체 조직, 불교청소년캠프 등 불교청소년의 해 관련 사업을 비롯한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스님) 새해 사업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지난 22일 발표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청소년포교 활성화와 포교사양성의 체계화 ▲신도등록 및 각급 신도회 구성을 주요 골자로 △불교청소년의 해 사업 추진 △포교사 양성 및 지도관리 강화 △전문포교사 양성 △포교사고시 정착 및 강화 △재적사찰 갖기운동 및 신행혁신운동 전개 △신도등록 및 신도증 발급 △각급신도회 구성 △산하단체의 효율적 관리 △신행단체 재정비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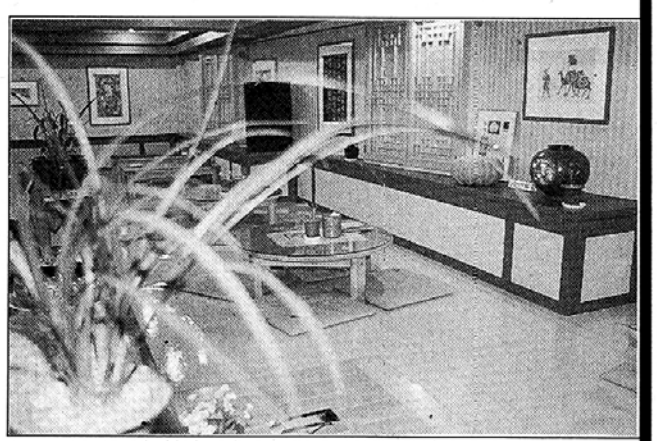
포교원장 성타스님은 "불교가 이 시대 밝히는 역할을 다하느냐는 포교에 달려 있다"며 "일선 포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禪茶一如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 다온 녹수청산

발걸음은 어느새 녹수청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차 한 잔이 더욱 그리워지는 때

따스한 차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따스함은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내 집을 찾은 손님을 맞이하듯
먼길 다녀온 자식을 대하듯
바로 그 정성으로 차를 다립니다.
오직 녹수청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따스함.
유달리 매운 바람에 옷깃을 여민 어느 날,
어느 새 발걸음은 녹수청산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 소모임, 불자들의 신행모임, 도심 특별법회, 강연회 등에 장소를 빌려 드립니다. (문의전화 : 736-3782)

오시는 곳



신비의 오-링테스트는 소문에서 소문으로!

자비와 대광명

불치병, 조상묘지 상담

현대의학으로 치료불가능한 불치병,난치병 치료와 선망조상과 부모형제의 영혼을 대명당에 편히 모시는 비법을 오-링 테스트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한 화제의 인물 법현 법사!
(일본에서 "오무라테스트"라 해서 새로운 질병 진단법으로 화재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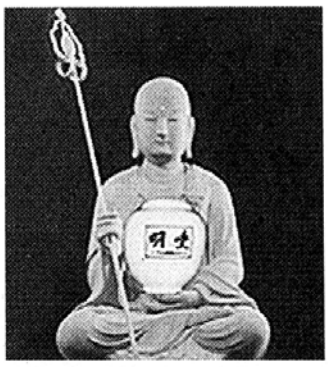
생명과학인 : 오-링 테스트는!

상담자의 오른손을 엄지와 인지로 맞대어 ○자 모양을 만들어 검사자는 정신적 능력으로 표준을 정하고 우주의 기를 이용하여 검사하면 질병과 액운의 원인을 밝혀주며 상담자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만성질병 상담

정신병, 우울증, 뇌졸증, 관절염, 신경통, 중이염, 자폐증, 불임증, 근무력증, 뇌성마비, 신들림병, 사업실패, 자녀불행, 가정불행

-법현법사 특별상담!!-



조상묘지상담

모든 질환과 액운은 조상묘 때문이다.

⊙풍수지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특수 개발한 명당 도에는 고인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줌은 물론 극락정토에 이룩되게 하여준다.

⊙선망조상과 부모형제의 유골을 영당도예에 모시거나 묘지옆에 묻어주면 명당이 되어 자손이 발복을 받아 만성질병도 치료되고 행운이 이루어진다.

■사찰에서 49제나 영가천도제를 하실 때는 영가를 영당도예에 모셔주고 하시면 편안한 영혼이 되어 극락왕생토록 할 것입니다.

■각 사찰에서 요청이 있으면 강의도 하여드리고 신도들에게 직접 보급토록 협조하여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1)465-5100,467-5200

상담장소 : 불심포교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384-10
(부산본역 건너편 국민은행뒤)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알레프 ㉮

보르헤스 作

단 한순간도 기가 꺾여 감상주의나 두려움으로 추락한 적이 없는 그 당당한 고뇌를 뒤로 하며 베아뜨리스 비떼르보가 죽던 2월의 찌는 듯한 아침, 나는 곤스띠뚜시온 광장에 있는 광고 철탑의 블론드 담배 선전광고가 어단가 모르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이 사실이 나는 가슴아팠다.그칠줄 모르는 광대한 우주가 이미 그녀에게서 떠났으며, 그것은 무한한 변화과정의 시작이라는데 생각이 미쳤기 때문이다.

우주는 변화해 가겠지만, 나는 변치 않으리라. 나는 우울한 허영심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4월 30일이 그녀의 생일이었던 것을생각해 보았다. 그 날 가라이가(街)에 있는 그 집을 방문해 그녀의 아버지와 사촌 오빠인 까를로스 아르헨띠노 다네리에게 인사를 드린 것은 예절바르고 나무랄데 없는 행동이었으며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었으리라.

베아뜨리스 비떼르보는 1929년에 죽었다. 그때부터 나는 4월 30일만 되면 어김없이 그녀의 집에 갔다. 나는 늘 7시 15분에 도착해서 25분정도 머무르곤 했다. 1933년에는 폭우의 덕을 보았다. 그들은 내게 식사하고 가라고 청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당연히 나는 그 좋은 선례

우주는 변화해 가겠지만 나는 변치 않으리라

를 그냥 흘려 버리지 않았다.

1934년에는 8시가 다 돼서 산타페산(產) 과자를 들고 찾아가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머물러 식사를 했던 것이다. 그렇게해서 나는 우울하고 쓸데없이 에로틱한 기일 (忌日)을 통해 점차 까를로스 아르헨띠노 다네리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그림 · 심 민 섭

1941년 4월 30일에 나는 산타페산 과자에다 국내산 코냑 한병을 더 가져가게 되었다. 아르헨띠노는 술맛을 보고나서 맛이 괜찮다고 했다. 그리고는 몇잔을 비우고는 현대인에 대한 옹호를 시작했다.

그는 왜 그런가 싶을 정도로 흡기차게 말했다. "나는 흡사 우리가 도시의 성벽 망대(望臺)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전화, 전신기, 축음기, 무전기, 영사기, 환등기, 용어사전, 시간표… 등이 갖춰져 있는 당신의 서재에서 현대인을 떠올린다네" 그는 그렇게 갖추어진 안간에게는 여행이라는 것이 쓸모 없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는 마호멧과 산띠아의 신화를 바꿔 놓았고 그래서 지금은 산들이 현대적 마호멧 위로 수렴되고 있노라고 말했다.그리고그 자신이 쓴 여러 시들을 읽어 주었다. 자정무렵에 그와 헤어졌다 〈계속〉

약력

1889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출생. 1914년 제네바에서 고등학교 졸업. 21년 마드리드에서 울뜨라이스노 문학운동전개. 55년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도서관장. 57년 제1회 아르헨티나문학상 수상. 79년 세르반테스문학상을 헤라르도 아에고와 공동수상. 86년 제네바에서 별세. '불교감의 영원의 역사' '어둠의 예찬' 등 사상서 시집 소설집 다수 남김.

건강백세 신행수기 영어경전 쉽니다.

탑공원 준공

대·행·스·님 진주대법회

자성삼보에 귀의하옵고,
금번 참다운 효심으로
조상님을 바르게 모실 수 있는 탑공원을 조성하여
감사한 마음을 회향코자
대행스님의 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둘이 아니며,
조상님들의 마음과도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될
더욱 뜻깊은 법연이 되리라 생각하며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1996년 2월 11일 (일) 14:00

■ 장소 : 진주 한마음선원
전화 : 0591-746-8163
44-1321
팩스 : 0591-746-7825

실체는 다

한마음의 나툼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BBS 불교방송



신입 및 경력사원모집

1.모집부분 및 인원

지역	구분	모집부문		인원	응시절차
서울	신입	방송직	기자,P.D,ANN	00명	1차 서류전형
		영업직	광고영업		
부산	신입	기술직		0명	2차 논문 및 실기전형
대구 및 청주	신입 및 경력	기자,P.D ANN, 기술직		00명	3차 면 접

2.응시자격 요건

가.신입사원
정규대학 졸업이상자 또는 졸업 예정자
• 남자 : 1968년 1월 이후 출생자 (석사는 65년 1월 이후 출생자)
• 여자 : 1971년 1월 이후 출생자 (석사는 68년 1월 이후 출생자)

나.경력사원
정규대학 졸업이상자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다.공 통
• 병역필 및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방송 기술직은 전자, 전기, 통신관련학과 전공자 단 무선설비 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함

3.지원서 배부 및 접수처

가.일 시 : 1996년 1월 29일~2월 3일 09:00-17:00
나.장 소:
서울)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B/D 15F 문의전화 : (02) 705-5222~6
부산)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3-13 보생B/D 10F 문의전화 (051) 644-5114
대구) 대구시 남구 대명9동 627-5 롯비니유지원3F 문의전화 : (053) 652-3123
청주)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846번지 삼호B/D 4F 문의전화 : (0431) 211-2090~1

4.제 출 서 류

가.입사지원서 (소정양식) ····· 1부
나.사진 (명함판) ····· 2매
다.자격증사본 (방송기술직종 소지자에 한함)
라.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1부
(대학원졸업자는 대학전학년 성적증명서 포함제출)

5.기 타 사 항

가.신심이 돈독한 불자
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국가 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우대함 (보훈청 발생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BBS 불교방송